

## ▶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하편 ◀

###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 (1) 서정 갈래의 흐름

*모닥불 (35문제)-----	1쪽
*농무 (38문제)-----	16쪽

#### (2) 서사 갈래의 흐름

*구운몽 (40문제)-----	32쪽
*만세전 (43문제)-----	57쪽
*겨울 나들이 (25문제)-----	83쪽

#### (3) 극 갈래의 흐름

*봉산 탈춤 (43문제)-----	101쪽
*파수꾼 (40문제)-----	128쪽

#### (4) 교술 갈래의 흐름

*일야구도하기 (22문제)-----	159쪽
---------------------	------

### 4. 한국 문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용소와 며느리바위 (13문제)-----	174쪽
*촉규화 (28문제)-----	185쪽
*평상이 있는 국숫집 (19문제)-----	196쪽

#### (2) 한국 문학의 특성

*홍보가 (31문제)-----	207쪽
*뫼뵤들 갈히 것거, 춘망사 (17문제)-----	227쪽
*거산호Ⅱ, 이니스프리 호수 섬 (16문제)-----	236쪽

#### (3) 한국 문학의 확장과 발전

*정선 아리랑 (8문제)-----	247쪽
*황진이 (29문제)-----	252쪽

◆빠른 전체 정답-----273쪽

◆해설-----277쪽

**교재 버전: 2021.02.17**

# “구운몽” 문력 명칭

## 정리

<b>갈래</b>	고전 소설, 장편 소설, 몽자류 소설	<b>성격</b>	환상적, 불교적
<b>제재</b>	연화봉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가 되어 겪는 다양한 일과 깨달음	<b>주제</b>	꿈을 통해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함.
<b>특징</b>	① 꿈과 현실을 오가는 환몽 구조를 지님. ② 현실 공간과 꿈속 공간이 모두 환상적으로 그려짐. ③ 조선 시대 사대부의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투영됨. ④ 불교적 색채가 두드러짐.		
<b>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꿈꾸기 전]</b> 계율을 어기고 벌을 받는 성진                      - 승려 성진이 팔선녀와 만난 후 숙세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끌리자 그것을 알아챈 육관 대사가 성진을 인간 세계로 추방하는 벌을 내린다.</li> <li>• <b>[꿈]</b> 어둠 여인과 인연을 맺고 부귀공명을 누리는 양소유                      - 성진은 양소유로 환생하여 함께 환생한 팔선녀와 차례로 만나 인연을 맺는 한편,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을 평정하여 승상이 된다.</li> <li>• <b>[꿈 깨 후]</b> 깨달음을 얻는 성진                      -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던 양소유가 어느 날 문득 인생의 허망함을 느껴 불교에 귀의하고자 결심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나고,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대중을 교화하는 데 힘쓰다 극락왕생한다.</li> </ul>		

## 핵심 내용

### ■ 고전 소설의 개념

: 일반적으로 개화기 소설이 등장하는 19세기 말까지의 소설을 가리킴.

### ■ 고전 소설로서 <구운몽>의 특징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	<구운몽>의 특징
<b>인물</b>	재자가인(才子佳人) 형, 영웅적 기질을 지님.	- 성진: 젊고 총명한 승려 - 양소유: 문장과 무예에 능통함.
<b>사건 전개</b>	비현실적, 우연적 사건 전개	비현실적, 우연적 사건 전개
<b>배경</b>	중국, 우리나라	중국 당나라를 배경으로 함.
<b>주제</b>	권선징악적 주제, 행복한 결말	주인공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음.
<b>구성</b>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인공의 일생이 전개되는 일대기적 구성	작품 전체는 환몽 구조, 액자식 구성이며 양소유의 삶은 일대기적 구성

### ■ <구운몽>의 환몽 구조

환몽 구조란 꿈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되 그것이 환상적인 것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꿈 이전 → 꿈 → 꿈 이후'라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삶이란 허망(무상)하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 ■ '꿈'을 전후한 성진의 가치관 변화



■ 제목의 의미



아홉 구름의 꿈

<p><b>아홉 명의 인물</b> 성진과 팔선녀 (양소유와 여덟 아내)</p>	<p><b>덧없는 인생</b> 하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은 덧없는 세상일을 이룰 때 쓰이는</p>	<p><b>꿈 또는 꿈 같은 인생</b> 인물이 꿈속 경험을 통해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깨달음.</p>
---	---	---

아홉 사람이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아홉 사람의 덧없는 꿈 이야기 또는 꿈을 통해 깨닫는 이야기임.

■ <구운몽>의 등장인물

	<b>성진</b>	<b>팔선녀</b>
<b>꿈꾸기 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관 대사가 중히 여기는 제자</li> <li>• 팔선녀를 만나 세속 부귀영화를 흠모했다가, 인간 세상의 양소유로 태어남.</li> <li>• 꿈에서 깬 뒤 불도에 정진하여 극락세계로 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산을 다스리는 선녀 위 부인을 모시는 여덟 명의 선녀들</li> <li>• 성진의 마음을 어지럽힌 별로 이들도 인간 세상에 태어남.</li> <li>• 꿈에서 깬 뒤 불도에 귀의하여 성진과 함께 극락 세계로 감.</li> </ul>
	<b>양소유</b>	<b>양소유의 2제 6첩</b>
<b>꿈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진이 환생한 인간 세상의 인물</li> <li>• 용모가 아름답고 문무에 뛰어난 인물로, 큰 업적을 이루고 부귀공명을 누림.</li> <li>• 말년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불도의 귀의할 결심을 하는 찰나 꿈에서 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선녀가 환생한 인간 세상의 인물들</li> <li>• 각자 개성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며, 모두 양소유와 결혼함.</li> <li>• 양소유의 불도 귀의를 함께 하고자 하다가 꿈에서 깬.</li> </ul>
	<b>육관대사</b>	
<b>꿈 깬 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진의 스승으로 중국 연화봉에서 불도를 가르침.</li> <li>• 하룻밤 꿈을 통해 성진이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고, 성진이 깨달음을 얻자 그에게 연화도량을 맡기고 서천으로 돌아감.</li> </ul>	

<구운몽>은 조선 후기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창작한 고전 소설로, 1.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한다. 김만중은 당쟁에 휘말려 평생 세 번이나 유배 생활을 하였는데, 두 번째 유배지인 선천에서 <구운몽>을 지었다. 1687년(숙종 1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의 일이다. 현실 세계의 주인공인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라는 인물이 되어 여덟 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고 크게 출세하는 등 부귀공명을 누리는데, 꿈에서 깨어난 뒤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다는 것이 <구운몽>의 중심 내용이다. 현실 세계에서 몽중 세계(꿈속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입몽(入夢), 꿈에서 깨어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것을 각몽(覺夢)이라고 한다. <구운몽>은 이처럼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꿈과 현실을 오가는 이야기 전개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이며, 2. 제목에 '몽(夢)' 자가 들어 있어 '몽자류 소설'이라고 한다. 또, 꿈 부분은 액자 내부에 해당하고, 현실 부분은 액자 외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액자식 구성의 작품이라 하기도 한다. 환몽 구조는 현대 소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 소설의 대표적인 형식 가운데 하나이다.

# “구운몽” 학습 활동 모음

## 1 소설의 서사 구조를 고려하여 주인공의 공간 이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 2 다음 말문을 참고하여, 짝과 질문하고 답하며 이 소설의 주제를 파악해 보자.

( )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孔孟)의 글을 읽고, ... 공명을 후세에 드리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 그 도가 높고 아름답구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나)  “소유는 본디 하남의 벼옷을 입은 미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남자들과의 은정이 백 년이 하루 같으니, ...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한가?”

  ( ), (나)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었지?

(가)는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돌아와서 마음속으로 한 말이었고, (나)는 양소유가 부귀공명을 다 누리 후 부인들에게 한 말이었어.

왜 (가)에서 (나)로 생각이 바뀌었을까?



승려일 때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았는데, 꿈속에서는 양소유가 되어서 마음껏 부귀공명을 누릴 수 있었지. 그런데 인간은 죽기 마련이고 그런 부귀공명도 영원하지 않으니 덧없다고 느낀 것 같아.

꿈에서 깨 성진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꿈에서 깨 성진이 한 말을 보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 또 육관 대사와 대화하면서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라고 했는데, 아마 삶도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닐까?



## 3 다음은 삼국유사에 실린 ‘조선 설화’를 요약한 것이다. 잘 읽고, 꿈의 기능에 주목하여 <구운몽>과 비교해 보자.

신라 때 조선이라는 승려가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조선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러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였다. 이에 조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다. 또 열 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출연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이에 마치 백 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다. 조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일연, 삼국유사)에서

**(1) 작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자.**

전	꿈속	꿈 깨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진이 바라던 것 부귀공명을 누리는 것</li> <li>• 조신이 바라던 것 태수 김흔의 딸과 혼인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소유가 겪은 것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을 평정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여덟 부인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림.</li> <li>• 조신이 겪은 것 김흔의 딸과 혼인하여 40여 년을 살았지만 점점 가난해져 극심한 고통을 겪은 끝에 헤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진이 깨달은 것 부귀영화의 허무함</li> <li>• 조신이 깨달은 것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li> </ul>

**(2) 작품에서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 꿈은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지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경험해 보게 하는 장치이다.
-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삶만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살아볼 수 없고 자신이 직접 겪어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 보면서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 “구운몽” 읽기 1부

**1. 성진이 스승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승려의 몸으로 술을 마시고 팔선녀를 만나 말을 주고받으며 희롱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불교의 계율에 어긋남을 인식하고, 스승이 이를 알게 되면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2. 성진이 제지른 세 가지 잘못은 무엇인가?**

- 몸: 술에 취했다.
- 말씀: 팔선녀를 만나 언어로 수작했다.
- 뜻: 남자로 태어나 장수나 정승이 되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적막하게 지냄을 한탄했다.

**3. 양소유가 인생이 덧없다고 느낀 까닭은 무엇일까?**

양소유는 부귀공명을 누렸지만 문득 삶이 영원하지 못하며 죽은 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인생이 덧없다고 느낀 것이다.

**4. ‘ ’은 누구일까?**

육관 대사

**5.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단서로 할 때, 꿈이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교과서 167쪽 4~5행 ‘향로에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일천 부처를 외우는데’

**6. ‘장주의 꿈’은 이 소설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구운몽>의 환몽 구조에 따르면 성진의 삶이 현실이고 양소유의 삶이 꿈에 해당하지만, 성진은 동정호의 용왕을 만나고 복사꽃을 명주로 바꾸기도 하며, 나중에는 극락세계로 가는 인물로 그려져 있어서 성진의 삶도 마치 꿈속의 삶처럼 비현실적이다. 육관 대사가 인용한 ‘장주의 꿈’은 이러한 <구운몽>의 특징과 맞물려 꿈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하며 무의미함을 알려 준다.

## “구운몽” 읽기 2부

**II 형산 연화봉에서 육관 대사가 결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견하고 있었다.**

<구운몽>의 도입부 즉, 꿈꾸기 전의 공간적 배경은 중국 남악 형산의 연화봉이다. 중국에는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 다섯 개의 명산이 있는데 그 중 남쪽에 있는 산이 형산이고 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다섯 개 중의 하나가 연화봉이다. 이곳은 오래 전부터 선녀 위 부인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당나라 때 서역에서 온 육관 대사가 여기에 머물러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며 설법을 하였다. 육관 대사가 설법을 할 때면 동정호 용왕이 와서 설법을 듣기도 했다. 이처럼 <구운몽>에서는 ‘현실’에 해당하는 꿈꾸기 전의 공간이 매우 환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진의 삶과 양소유의 삶 중에 어떤 것이 꿈이고 어떤 것이 현실인지 모호하게 만든다.

**2 어떤 봉오리 땅에 떨어져 어떤 개의 명주로 퇴락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석교에서 마주쳐 언어로 서로를 희롱하다가 성진이 복사꽃을 명주로 변하게 하는 환상적인 장면이다. 팔선녀가 성진이 만들어 준 명주를 받아가는 것은 이들 사이에 인연이 맺어졌음을 암시한다.

**3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 대장부의 일이라.**

‘공맹’은 유교의 성현인 공자와 맹자를, ‘요순’은 고대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룩했던 요임금과 순임금을 가리킨다. 공맹의 글을 읽고 요순 같은 이상적인 임금을 섬기며,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부귀와 공명을 떨치는 대장부의 삶이란 승려로서 실행할 수 없는 세속적 삶으로 유교적 이상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조선 시대 양반의 이상과도 통한다.

**4 향토에 견단을 다시 피우고 ... 일천 부처를 외우는데**

성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불경을 외운다. 그러던 중에 스승의 부름을 받고 방장으로 꾸지람을 듣고 염라대왕에게 끌려가 양소유로 환생하게 된다. 교과서 170쪽에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살펴보면, 이 장면에서부터 성진의 꿈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즉, 지옥에 끌려가는 장면이나 양소유로 환생하는 장면에서부터 성진의 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진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일천 부처를 외울 무렵부터 꿈이 시작되는 것이다.

**5 내가 떠돌이에서 풀려난 후로부터 ...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양소유는 아주 어렸을 때는 자신이 성진이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성진의 기억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그는 꿈속에서 성진으로 살았던 때의 기억과 마주하는데, 이는 성진과 양소유가 동일인임을 환기시키고 동시에 양소유로서의 삶이 성진의 꿈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어떤 삶이 현실이고 어떤 삶이 꿈인지 모호하게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6 모든 남자들이 다 견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양소유의 부인들은 모두 성진과 석교에서 만났던 팔선녀이고, 팔선녀는 연화봉을 다스리는 선녀인 위 부인을 모시던 시녀들이었다. 따라서 양소유가 문득 출가할 뜻을 밝혔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다.

**7 자기의 몸은 작은 알자의 ... 지는 달이 강가에 비치고 있었다.**

양소유가 꿈에서 깨어나 성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구운몽>의 도입부에서는 어디서부터 꿈이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돌아와 향토에 견단을 피우고 포단에 앉아 잠깐의 꿈을 꾸는 사이에 양소유의 일생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 내가 말하기를 ... 어느 것이 꿈이나?**

성진은 자신이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면하고 양소유의 꿈을 꾸었다고 생각한다. 육관 대사는 그런 성진에게 아직 꿈을 깨지 못한 것이라 말하면서 성진의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또한 《장자》에 나오는 ‘호접지몽(胡蝶之夢)’ 고사를 인용한다. 이는 어느 날 장자가 근심 없는 나비가 되어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꿔는데, 잠에서 깨어난 후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을 꿔는지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이제 꾸기 시작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 ‘호접지몽’은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현실과 꿈, 타자와 나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장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 고사로, 오늘날 인생의 덧없음(무상함)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육관 대사는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나?’라고 물어봄으로써 현실과 꿈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하고, 삶도 꿈과 같은 것이므로 헛된 욕망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깨우치고자 한 것이다.

**9 팔선녀가 풀려나와 ... 머리를 쥐어 찌렀다.**

세속의 삶을 상징하는 연지분과 머리를 쥐는 것으로 팔선녀가 불가에 귀의(貴意)함을 나타내었다.

**10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 극락세계로 갔다.**

<구운몽>의 뒷부분을 요약한 내용이다.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다 이룬 성진은 결국 그 허망함을 깨닫고 꿈을 깬 후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스승인 육관 대사의 뒤를 이음으로써 정신적인 삶에서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다. 또한 성진과 팔선녀가 극락세계로 갔다는 결말은 정신적인 면에서의 행복한 결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유는 본디 하남(河南)의 벼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 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將相)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의 은정이 백 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숙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돌아감은 천지에 떳떳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간 백 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와 여러 낭자의 옥용화태는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한가?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儒道)·선도(仙道)·불도(佛道)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三教)라고 이른다. 유도는 생전(生前)의 사업과 신후(身後)에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한 무제·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五臺)에 올라 문수보살(文殊菩薩)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도를 얻어 진세 고락을 벗고자 하되,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오.”

<중략>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홀연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한 호승(胡僧)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다.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을 뵈웁니다.”

태사가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공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저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려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년을 상종하였으리오?”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錫杖)을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樓臺)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에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性眞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公明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중략>

“여선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도 머니, 큰 역량과 큰 발원이 없으면 쉽게 이르지 못할 것이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팔선녀가 물러나와 ㉤얼굴에 칠한 연지분을 씻어 버리고 각각 소매에서 금전도(金剪刀)를 내어 흑운 같은 머리를 깎아 버렸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대사께 사퇴하기를,  
“제자들이 이미 얼굴을 고쳤사오니, 맹세코 사부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대사가 이르기를,  
“좋도다. 좋도다. 너희 팔 인이 능히 이렇듯 하니 진실로

좋은 일이다.”

드디어 대사가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론하니 백호(白毫) 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

[뒷부분 줄거리]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육관 대사의 뒤를 이어 연화도량에서 설법을 하며 대중을 교화 하였고, 이후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

- 김만중, 「구운몽」 -

**비슬고등학교 (대구)**

1. 윗글과 <조건 1>의 주인공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쓰고, ㉡깨달음을 얻기 전 두 인물이 지향하는 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조건 2>를 참고하여 쓰시오.

<조건 1>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조신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러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였다. 이에 조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다. 또 열 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기 아이를 돌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홀연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이에 마치 백 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 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다. 조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일연, <삼국유사>에서

<조건 2>

• ㉠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성형 문장으로 작성할 것.

**비슬고등학교 (대구)**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현실과 꿈을 오가는 환몽 구조를 통해 환상성을 강조하고 있다.
- ㉡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 불교를 유교적 사상보다 더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 ‘구운몽’은 작품 속 주요 등장인물의 숫자와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 ㉤ 인물 간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작품의 풍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슬고등학교 (대구)**

3. ㉠ ~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말하는 이가 대상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 ㉡ : 고사를 인용하여 지향할 바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인물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
- ㉢ ㉢ : 노승은 양소유가 기억하는 바를 믿지 못해 추궁하고 있어.
- ㉣ ㉣ : 함께 지냈던 세월에 대해 후회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어.
- ㉤ ㉤ :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굳은 결심을 드러내고 있어.

**비슬고등학교 (대구)**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소설의 특징은 전기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전기성이란 비현실적 요소를 소설에 삽입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사건 해결의 장치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전소설의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재자가인(才子佳人)이며, 조력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다. 또한 인과응보를 통해 고난을 극복한 후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 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나간 양소유의 모습에서 비범한 재자가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② ‘석杖(錫杖)을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는 인물의 행위는 주인공을 위한 조력 행위라고 할 수 있어.
- ③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모습에서 작품의 전기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
- ④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性眞行者)임을 깨닫는’ 모습에서 인과응보를 통해 외부의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⑤ 성진이 깨달음을 얻고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라는 설정은 행복한 결말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어.

※ 다음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나라 형상 연화봉에서 육관 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 대사의 제자 성진은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위 부인의 시녀들인 팔선녀는 육관 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다.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水晶宮)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궁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성진을 상좌에 앉히고 진찬을 갖추어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가로되,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狂藥)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파계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왕이 가로되,

“부처가 다섯 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내 어찌 모르리오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자못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아니하나이다.”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 잔을 기울였다. 용왕께 하직하고 바람을 타고 ⑦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 산 아래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술기운이 올라 낮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으리요.’ <중략>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물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 쉬어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禪房)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

두워졌다.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孔孟)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堯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권에 조회(朝會)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때의 밥과 한 병의 물과 두어 권의 경문과 백팔 염주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다.’

<중략>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성진은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끌려가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고 중국 회남도 수주 땅에서 양소유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뒤 반란을 평정하는 등 나라에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고 황제의 동생인 난양공주를 비롯한 여덟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평생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던 양소유는 어느 날 자신의 집 누대에 올라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소유는 본디 하남(河南)의 배움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將相)에 이르렀으며 남자들과의 인연이 백 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숙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돌아감은 천지에 떠뒀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간 백 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남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와 여러 남자의 옥용화태는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한가?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儒道)·선도(仙道)·불도(佛道)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三教)라고 이른다. 유도는 생전(生前)의 사업과 신후(身後)에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한 무제·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五臺)에 올라 문수보살(文殊菩薩)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도를 얻어 진세 고락을 벗고자 하되,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오.”

모든 남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또한 세속 인연이 다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중략>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옳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A]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려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년을 상종하였으리오?”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錫杖)을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樓臺)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에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 희롱하시나이까?”

[B]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性眞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公明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

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히 하여 방장에 나가 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 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겁이 지나도 값기 어렵나이다.”

- 김만중, <구운몽>

(나)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조신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러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였다. 이에 조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다. 또 열 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기 아이를 돌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홀연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이에 마치 백 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다. 조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일연, <삼국유사> 에서

**창동고등학교 (서울)**

5. 윗글 (가)에 등장하는 공간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세속적 연민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의 실제 모습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공간이다.
- ㉡ 부귀공명이 현실화된 꿈의 공간 ㉢은 현실을 환상적으로 묘사한 공간인 ㉠과 대비된다.

- ㉠ 꿈속 공간인 ㉡과 ㉢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제 삶을 미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 ㉣ 불교적 색채가 담긴 ㉤과 유교적 질서가 드러나는 ㉥이 대비되어 작품의 사상적 배경을 드러낸다.
- ㉦ ㉧은 ㉨으로 오기 전 머물렀던 곳으로 꿈과 현실의 중간계적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6. 윗글 (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인물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 ㉡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 인물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빠른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다.
- ㉣ 소설 속 인물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사건의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이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몽자류 소설은 글자 그대로 '몽(夢)'자가 붙은 소설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소설의 구조는 환몽구조로 주인공이 꿈을 꾸는 과정을 거쳐 꿈속에서 다른 인물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경험한 뒤에 다시 꿈에서 깨는 과정을 거쳐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구조이다. 이 때 꿈속에서 새로 태어난 주인공은 그 이전의 자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꿈을 깨면서 둘 사이의 일치를 확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몽자류 소설은 현실과 꿈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대부분 이에 속하는 작품들의 현실인식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현실의 자아와 꿈속의 자아는 다른 인물로서 꿈과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 ㉠ 성진이 인간부귀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몽자류 소설의 현실 인식 특징을 보여주고 있군.
- ㉡ 소화상과 대승상이라는 대비적 지위를 통해 현실의 자아와 꿈 속 자아는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군.

- ㉢ 양소유가 노승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전 자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인물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군.
- ㉣ 꿈에서 깬 성진이 인간세상에서 입신양명한 양소유로서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둘 사이의 일치를 확인한 것이군.
- ㉤ 고승이 환술로 승상이 취몽 중인 것처럼 느끼게 한 것은 꿈과 현실의 차이를 보다 크게 느끼게 하려는 것이군.

**창동고등학교 (서울)**

8. 윗글 (가)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A]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B]는 직접적 설명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 [A]는 사건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 [B]는 묘사를 통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 [A]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B]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주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 ㉣ [A]는 이상적 공간의 모습, [B]는 현실적 공간의 모습을 묘사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극대화하고 있다.
- ㉤ [A]는 한 가지 사건을 상세히, [B]는 여러 사건을 빠른 호흡으로 서술하여 꿈과 현실의 차이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9. 윗글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노화상과 김흔은 주인공을 각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 용왕과 관음보살은 인간의 광약인 술이 부처의 계율을 어기게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 꿈속에서 조신은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였고 성진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양소유의 삶은 입신양명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반면 조신 가족의 삶은 가난이라는 세속의 난관이 담겨 있다.
- ㉤ 성진과 조신은 불가의 법문이 출세 지향적이라 품격이 없음을 회의를 느껴 보다 인간적인 삶에 관심을 갖게 된다.

# “만세전” 문학 명칭

## 정리

<b>갈래</b>	현대 소설, 중편 소설	<b>성격</b>	사실적, 비판적, 자기반성적
<b>배경</b>	• (시간) 만세(3·1 운동) 전夜の 겨울, 1918년 • (공간) 일본과 식민지 조선		
<b>시점</b>	1인칭 주인공 시점		
<b>제지</b>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관부 연락선에서 겪은 일		
<b>주제</b>	일본 식민 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과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자기 성찰		
<b>특징</b>	① 주인공이 겪은 일, 보고 들은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음. ②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식민 지배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음. ③ 주인공의 반성적 자기 성찰이 뚜렷함. ④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쓰임.		
<b>구성</b>	[발단] 동경 유학 중인 주인공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 준비를 한다. [전개] '나'는 동경의 술집이나 고베에 들러 아는 여성들을 만난다. [위기] '나'는 시모노세키에서 탄 관부 연락선 안에서 식민 지배의 폭력적인 실상을 알고 분노한다. [결정] 부산에서 경성으로 오면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더 잘 알게 된 '나'는 큰 분노, 깊은 환멸에 사로잡힌다. [결말] 경성에서 아내의 죽음을 지켜본 '나'는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로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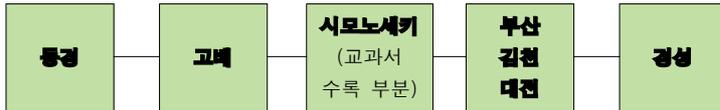
## 핵심 내용

### ■ 현대 소설의 개념

: 신소설 이후에 창작되기 시작한 본격적인 근대 소설. 근대적인 국문체로 쓰였고 등장인물이 개성적이고 입체적이며 사건 전개 방식이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 <만세전>의 여로 구조

: <만세전>은 주인공인 '나'(이인화)가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되돌아가는 원점 회귀형 여로형 소설에 해당한다. <만세전>에서 이러한 구조는 '나'가 자기 자신과 조선의 현실을 점차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 ■ <만세전>의 시점

<b>1인칭 주인공 시점</b>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 과정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서술함. → '나'의 시선에 따라 조선인을 멸시하고 착취하는 일본인의 태도와 당시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포착하여 사실적으로 서술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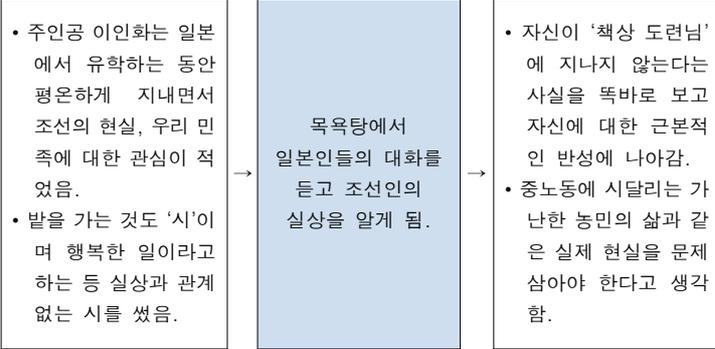
### ■ 일본인들에 대한 '나'의 태도

일본인들과 관련된 말	.....	'나'의 태도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 '상판대기', '굴자', '촌뜨기' 등		못마땅하게 여김. (부정적 태도)

### ■ '나'가 받은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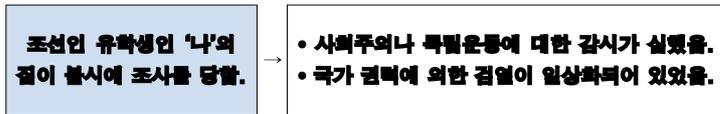
일본인들의 대화	→	'나'의 반응
조선의 노동자를 속여 데려와서 일본 회사에 팔아넘긴다는 내용		조선인들이 비인간적 취급을 받으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현실을 알고 놀람.

■ <만세전>의 의미 - 자기반성의 정신



→ 청년 지식인의 이 같은 자기반성은 염상섭 초기 문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문학사의 진전을 이끄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나'의 집이 조사당하는 부분에 드러난 당대 조선인의 상황



■ '뜨끈뜨끈한 눈물'의 의미

- ① 식민 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
- ② 식민지 사람으로서의 고독감, 슬픔 등
- ③ 현실 대응과 관련한 무력감

■ <만세전>의 원제 '모지(무덤)'의 상징성

조선의 현실	-	모지(무덤)
당대(1910년대 후반) 조선의 앞당하고 결명적인 현실을 상징함.		
• 식민 지배 세력이 조선인들에게 무도하고 폭력적으로 굶. • 조선인들이 생기를 잃은 채 마치 망랑(魍魎, 도깨비)이나 무덤 속 구더기처럼 순종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감. '나'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음.		

## “탄압민” 막춤 할당 문제

1 소설의 사건 전개 양상을 살펴며, 각각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나'의 심리를 파악해 보자.

'나'의 심리	'나'의 상황
보이는 얼굴의 사람과 촛뜨기의 대화를 들음.	놀라며 자신의 일에 대해 의문과 불안, 부끄러움을 느낌.
권자(형사)의 호출을 받음.	권자에게 불쾌감과 분노, 연민 등을 느낌.
배 밖으로 나와 인버네스, 양복쟁이에게 가방 검사를 받음.	무슨 망령을 부릴까 봐 불안해하고 배를 타지 못할까 봐 초조해함.
서류 봉치를 양복쟁이에게 건네주고 다시 배에 올라탐.	안도감, 고독감, 슬픔 등을 느낌.

**2 소설에 나타난 당대의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상황을 알 수 있는 어휘나 구절을 찾아보자.**

- , 조선 쿠리, 내지인, 노동자 모집원, 사회주의, 독립사상 등
- 그 가련한 노동자들이 ... 몸이 팔려 가는 것이,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 뉘질 지경이면, 학생복에 망토를 ...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등

**(2) 당대 조선인의 현실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

이 작품 전반을 통해 당대의 조선인들이 일본의 폭력적인 식민 지배를 받으며 멸시받고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목욕탕 대화 부분에서 당대 조선 농군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굶주리다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잘살기 위해 일본에 와서도 낮은 품삯을 받고 중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나가 짐 조사를 당하는 부분에서는 당대에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사회주의나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가 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3) (1), (2)를 바탕으로 하여 이 소설의 주제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식민 지배의 폭력성과 조선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증언
- 청년 지식인의 자기반성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

**3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목욕탕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시'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다.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적어 보자.**

'시'에 관한 생각의 변화	자신의 감상
' '는 자신이 알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나름의 진실을 담아 '흙'을 예찬하는 시를 썼을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졌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거나 느낀 바를 진솔하게 표현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밭을 가는 것이 시라는 등 '흙'을 예찬하며 가난한 농민의 비참한 현실과 동떨어진 시를 썼었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후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무관한 시는 좋은 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주인공 '나'처럼 나도 현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공감을 얻고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가 좋은 시인 것 같다. 그래서 '나'의 생각 변화가 참 바람직해 보인다.

**4 다음은 <만세전>이 일제의 검열에 걸려 삭제된 사건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 < (제3회)> 16면이 삭제되었음을 알리는 신생활의 지면. <묘지>는 <만세전>의 원래 제목이다.

**(1) 자신의 글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작가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추측해 보자.**

놀람, 당혹, 분노, 두려움, 저항 의지 등으로 매우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2) 이 소설이 일제의 검열에 걸린 이유를 당대의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자.**

식민지 통치 세력의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조선인 노동자 모집의 현실, 검문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 등을 통해 식민 통치의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민민” 읽고 생각

1.그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매우 귀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시골자와 그의 동행이 자신의 말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의도하기도 했을 것이다.

2. ‘겔자’의 말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조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북선 지방은 남선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인의 세력이 덜 미친 상태이다. 또 조선, 특히 남선 지방의 조선 농민들은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 기회만 있으면 살길을 찾아 만주로 가거나 일본의 도시로 진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3. ‘나’가 조선의 비참한 농촌 현실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관부 연락선의 목욕탕에서 들은 노동자 모집원의 말

4. 일본인 행세를 하는 ‘겔자’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편으로는 불쾌하게 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한다.

5.‘나’가 처음엔 거부하다가 결국 형사의 뒤를 따라선 까닭은 무엇인가?

‘겔자’를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고, 시간이 지체되면 관부 연락선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6.형사들이 ‘나’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떠한가?

사회주의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서적이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

7.찬바람을 쐬어 가며 웅승그리고 갑판 위에 서 있는 ‘나’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분노에 차 있는 한편 자신이 고독하며 불행하다고 느끼는 등 머릿속이 복잡하다.

## “한민민” 두번째 씬

### Ⅰ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품을 팔팔이 오는 것인데,

욕탕에서 대화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은 값싼 노동자가 필요한 일본 국내의 여러 회사와 손을 잡고 조선인들을 속여 데려오는 것이라 밝히는 부분이다. ‘요보’라는 지칭에서 조선인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드러난다.

### Ⅱ 나는 여기까지 듣고 ...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욕탕에서 조선인 노동자 모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인물들은 모두 일본인이며, ‘나’는 조선인으로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가난한 조선인들이 욕탕의 일본인과 같은 노동자 모집원들에게 속아서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일하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크게 놀란다. 또한 ‘가련한 조선 노동자’,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 ‘상판대기’와 같은 표현을 통해 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의 심정, 그리고 노동자 모집원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

### Ⅲ ‘을지, 그래서 이자의 힘이 헌병 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윽말 작경으로 이르는 게포군’

교과서에서 생략된 앞부분에서 시골자(촌뜨기)는 자신의 형이 식민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부대의 헌병 군조(하사관)임을 밝히자, 노동자 모집원은 그 말에 반색을 하면서 조선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이후 그가 자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나’는 그가 조선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데 시골자 형의 힘을 빌리려는 생각에 이르는 것이라 짐작한다.

### Ⅳ 겔자는 명명히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等分)해 보고

두 사람이 ‘병병히’, 즉 ‘어리둥절하여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게’ 듣고 앉았다는 데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에 폭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분하다’는 ‘분량을 똑같이 나누다’라는 뜻이다. 사전의 이 같은 뜻풀이를 따르면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해 보고’는 노동자 모집원이 어느 한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래 보지 않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방 뒤에 나온 개정본에서는 ‘등분(等分)해 보고’가 ‘이리저리 바라보고’로 바뀌었다.

### Ⅴ “에 남선 지방에 ... 나서게 되리다. 허허하.”

노동자 모집원은 남선 지방에 내지인(일본인)이 많이 들어가니 가난한 조선인은 쫓겨서 북쪽의 남만주로 가거나 남쪽의 일

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지 않으면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배를 불리지 못한 채 부종이 나서 죽을 지경이라 변화한 대판(오사카), 동경(도쿄)으로 나가서 잘살아 보겠다는 희망으로 일본으로 가려는 응모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일본의 세력이 북선 지역으로 확장되면 그곳 조선인들도 오래지 않아 살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도나도 살길을 찾아 일본이나 만주로 가게 될 것이라 예상하며 즐겁다는 듯 웃는다. 당대 조선인의 비참한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일본인의 태도를 잘 보여 주는 부분이다.

**㉞ 장설에 열부리는 ... 팔팔팔 웃었다.**

노동자 모집원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추임새를 넣으며 자신의 이야기에 열중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보고 들어 아는 지식 곧 견문이 넓다고 스스로 믿어 즐거워한다.

**㉟ “얼마가 뭐요 ... 근 이젠 원 돈이 들어왔다우.”**

노동자 모집원에게 여비와 일당 외에 모집 노동자 한 사람당 모집비가 일 원에서 이 원까지 지급되니 수익이 매우 좋다고 하며, 자신이 하는 일의 별이가 얼마나 좋은지 자세히 늘어놓는 부분이다. 조선인을 마치 물건처럼 말하며 조선인을 모집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강조하는 데서, 그가 조선인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㊱ “잘려구 못하는 것은 ... 하는 수 있나..... 허허하.”**

노동자 모집원이 모집 후의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조선인은 순종적이고 일을 잘하는 데다가 임금이 싸서 일본 회사에 소개할 노동자로는 가장 좋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모집원은 조선인들을 데려갈 때 노자를 대 주고 빛을 갚아 주는 등 돈을 쓰는데 그것은 조선인 노동자들에게는 일종의 당겨쓴 돈으로서 그들을 구속하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감언이설로 조선인들을 속여 일단 일본으로 오게 하는 데 급급할 뿐, 일본에 와서 조선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노동자 모집인의 무책임하고 악랄한 면모가 잘 드러난다.

**㊲ 스킨두갯줄 권 귀상 도련님인 그리의 나르시는 ...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 조선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실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해 ‘의문과 불안’을 갖게 되었다.

**㊳ ‘시를 짓는 것보다는 ... 생명이니라......’ / 이러한 의미로 읊봄에 산문시를 쓰면, 자기의 공상과 권리(權利)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농민 특히 자기 소유의 농토가 없는 소작인이 얼마나 중노동에 시달리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굶주려야 하는지 등 농민의 실제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되자, 흙과 농사를 예찬하는 내용의 시를 짓던 자신의 비현실적 사고(공상)와 얕은 생각(천려)가 부끄러워진다는 것이다.

**㊴ 조반 위의 낫잡은 ... 얼굴이 붉는 것도 시일까?**

건강을 염려하여 취미로 농사일을 하는 것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농민의 노동을 대비시켜 ‘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다.

**㊵ 학생복에 방포를 ...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체격과 말투로 보아 조선인임이 분명한데 그 사실이 드러날까 보아 불안한 심리가 ‘겉자’의 언행에 분명하다.

**㊶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회극을 연기(演技)하는 영부세의 격이었다.**

‘겉자’와 ‘나’는 일본어를 사용하여 일본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주변의 일본인들은 두 사람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니 그들의 말과 행동은 우스꽝스러운 희극 연기와 같다는 뜻이다.

**㊷ 여러 사람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은 ...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았다.**

‘나’는 여러 일본인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에 ‘경멸’의 뜻이 담겨 있다고 느끼며 시선을 피한다. 이후 ‘나’가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다고 여기는 것은 조선인으로서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㊸ 웃을 다 잃고 문 밖으로 ... 어색해지는 빛이 역력히 보였다.**

겉자(여기서는 학생복 입은 형사)는 일본인들이 지켜볼 때 명령하듯이 소리를 치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었지만 ‘나’가 문 밖으로 나오자 저자세를 취한다. ‘나’는 이를 보고 그가 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조선인이라는 정체는 탄로 날까 염려하고 있다고 짐작한 끝에, 그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

**㊹ 선실 내의 수백의 눈은 ... 더 쬐을 수가 없었다.**

수많은 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짐 조사를 당하게 된 '나'는 큰 수치심을 느낀다.

**17** **펼쳐 사람의 일을 끌어서, 아까 사 가지고 풀이은 뉘도 그곳까지 가지고, 가명을 끌고 앞서 나가는 형사의 귀를, 띠려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준비한 도시락까지 챙겨 들고 나섰다는 것이니, '나'가 매우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잘 보여 준다.

**18** **화가 나는 것을 주리 참듯 참고**

주리는 '죄인의 두 다리를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주릿대를 끼워 비트는 형벌'인데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것을 참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안간힘을 다해 참는다는 의미이다.

**19** **서적을 하나씩 풀이 보아 가며, 일일이 책명을 수첩에 기입하며 앉았다.**

지식인 선객의 경우 그가 지닌 서적에 대해 매우 자세히 검열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184쪽을 보면 양복쟁이가 서류 멩팅이를 갖다가 보고 돌려주겠다고 하자 '나'가 이를 기꺼이 승낙하며 "원래 나에게서는 사회주의라는 '사' 자나 레닌이라는 '레' 자는 물론이려니와, 독립이라는 '독' 자도 없을 것은,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보아도 알 것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보아 형사들이 사회주의나 독립운동을 경계하였고 그에 따라 일본의 식민 지배, 천황제, 자본주의 체제에 비판적인 내용의 서적이 있는지 살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20** **비뚤한 해기(海氣)를 품은 ... 끌리져 왔었다.**

'나'는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형사들은 수상한 인물인 '나'를 의심하여 불온한 내용이 들어 있는 책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형사들이 짐 실는 인부 소리나 파도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데서 매우 긴장되고 적막한 분위기가 드러난다.

**21** **그러나 1분, 2분 ... 초초했다.**

흐르는 시간을 분 단위로 자잘하게 세면서, 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매우 초조하고 불안한 '나'의 심리를 드러 낸 부분이다.

**22** **하여간 무사히 평안되어 배에 오르게 된 것만 다행히 여겨, 필자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수습하여 가지고 나냈다.**

'나'가 급하게 다시 배에 올라타면서 무사히 풀려났다는 데 안도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23** **기름 쓰는 듯한 경적과 ...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

'나'는 배가 출발하면서 나는 소리가 처량하고도 요란하다고 느낀다. 이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불시에 형사들로부터 검문을 받으며 수모를 겪은 '나'의 심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별판과 바람이 쓸쓸하다고 표현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24** **나는 선심도 풀이갈 생각도 없이 ... 눈은 뾰근뾰근할 뿐이다.**

'나'는 과도한 긴장 상태, 심리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채 벗어나지 못해 머릿속이 복잡하고, 곧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앞에서 겪은 사건을 고려할 때, '나'의 이러한 상태는 형사들의 폭거에 대해 분노하는 한편, 자신이 그러한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무력감, 고독감과 슬픔 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나'는 자신을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에 비유하면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벗어나 떠도는 자와 같이 고독하고 불행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엄청나게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25** **외부 포켓에다가 두 손을 저르고 ... 여견히 섰었다.**

'나'가 흘리는 '뜨끈뜨끈한 눈물'에는 앞에서 말한 분노, 무력감, 고독감, 슬픔 등이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가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닦지 않는 것은 자신이 겪은 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26** **나는 짧은 것을 보고 듣고 직접 겪으며 전에는 잘 몰랐던 식민지 현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 나는 그 현실을 '무덤'과 같다고 느낀다.**

<만세전>의 뒷부분 가운데 '무덤'과 관련 깊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인공 이인화는 경성(서울)까지의 여행길을 통해 식민 지배 세력이 조선인에게 무도하고 폭력적으로 구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노한다. 또한 그러한 현실에 놓인 조선인들이 순종적이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에 환멸을 느낀다. 이 때문에 '나'는 당대 현실이 무덤과 같다고 인식하고, 자신을 포함한 조선인들은 그 무덤 속 구더기와 같은 존재들이라 생각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나는 도쿄에서 기차로 시모노세기까지 와서 관부 연락선에 올라 배안의 목욕탕에 들러 탕 안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실상은 쉬운 일이에요. 나도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쿠리[苦力] 말씀이에요, 노동자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야 하지만, 그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가련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으로 몸이 팔려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제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옳지! 그래서 이자의 형이 헌병 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이러는 게로군!’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었다.

결자는 병병히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등분(等分) 해 보고 빙긋 웃고 나서, 또다시 말을 계속한다.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고 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제미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주린 배를 불러진 고사하고 반년짜은 강냉이나 시래기로 부증이 나서 뉘질 지경이면, 변화한 대판, 동경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살아 보겠다’는 수작으로, 나두 나두 하고 침을 하다시피 해 오는 터인데, 그러나 북선 지방은 인구도 적거니와, 아직 우리 내지인의 세력이 여기같은 미치지 못했으니까. 비교적 그놈들은 평안히 살지만, 그것도 미구에는 동냥 쪽박을 차고 나서게 되리다. 하하하.” (중략)

스물두셋쯤 된 책상 도련님인 그때의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한 인간성이 어떠한 사회가 어떠한 해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그렇지 않으면 코빼기도 보지 못한 조상의 덕택으로, 공부 자(工夫子)나 얻어 하였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포만의 비애를 호소할 따름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아무 관계도 연락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짜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제,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였다. 나두 팔구 세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

1년에 한 두어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발을 갈라고 한다. 그러나 발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의 방순한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의 복옥(馥郁)한 생기가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 이니라…….’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淺慮)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흙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반 후의 낮잠은 위약(胃弱)’이라는 고등유민 계급의 유행병에나 걸릴까 보아서, 대팻밥모자에 연경(煙鏡)이나 쓰고, 아침저녁으로 호미 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詩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저러나, 일 년 열두 달, 우마(牛馬)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죽에 얼굴이 붓는 것도 시일까? 그들이 삼복의 끓는 햇볕에, 손등을 데면서 호미 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름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열 방울의 땀과 백 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拂되는 보수는 무엇인가.-주름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받을 품값이다.

나는, 몸을 다 훑치고 옷 입는 터전으로 나왔다.

나는 사람, 드는 사람, 한참 복작대는 틈에서 부리나케 양복바지를 꿰며 섰으려니까,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절모자를 쓴 대가리를 불쑥 디밀며, 황당한 안색으로 방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실례올시다만, 여기 이인화(李寅華)란이가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

“네에, 나요. 왜 그러우?”

나는 결자의 앞으로 두어 발자국 나서며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결자는 한참 찾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하듯이 소리를 친다.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이며, 제단은 유창하게 한담시는 일어의 어조가,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도 짓곳이 일어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의 본색이 탄로될까 봐 염려하는 듯한 침착치 못한 행색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을 짐작한 여러 일인의 시선은, 나에게서, 그자에게, 그자에게서 나에게로 울지 같지 하는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작(演作)하는 앵무새의 격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할 말 있건 예서 하구려.”

그래도 나는 기연가미연가하며, 역시 일어로 대답하였다.

“하여간 이리 좀 나오슈.”

말씨가 벌써 그러한 종류의 위인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 언사의 오만한 것이 위선 귀에 거슬려서, 다소 불쾌한 어조로,

“그럼 문을 닫고 나가서 기다리우.”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주섬주섬 옷을 마저 입기 시작하였다. 여러 사람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은, 여전히 내 얼굴에 거미줄 늘어듯이 어리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하던 세 사람은, 힘끔힘끔 결눈질을 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나는 도리어 그 시선을 피하였다. 불쾌한 생각이 목구멍 밑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을 뿐 아니라,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았다.

- 염상섭, <만세전>

**대전노은고등학교 (대전)**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목욕탕'은 현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공간이다.
- ㉡ '대판, 동경'은 조선인들이 살기 어려워 살길을 찾아 가려는 곳이다.
- ㉢ '책상 도련님'은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인식하기 이전의 '나'의 상태이다.
- ㉣ '경상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인이 많아 식민 지배가 심한 지역이다.
- ㉤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는 나에게 공핍한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해준 인물이다.

**대전노은고등학교 (대전)**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920년 소설 문학의 중심적인 사조는 사실주의였으며 이 시기 소설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였다. 사실주의적인 세계의 인식방법은 소설의 현실 인식의 태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적인 삶으로부터 식민지 조국의 현실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졌으며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정치 사회적인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 ㉠ 일제의 수탈로 인해 피폐해진 조선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 흙의 방순함에 취해 농사를 짓는 농민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인식하여 서술하고 있다.
- ㉢ 당대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속아 공장으로 팔려가는 현실을 비참하게 그려내고 있다.

- ㉠ 조선인을 향한 일본인들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 주인공의 관심이 개인적인 삶에서 식민지 조선의 환경으로 옮겨져 현실 인식에 대한 깨달음을 보이고 있다.

**비슬고등학교 (대구)**

3.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인식 변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 ㉡ 시대 현실을 반영한 단어의 사용을 통해 현실 문제가 부각된다.
- ㉢ 장면마다 서술자를 교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조망하고 있다.
- ㉣ 인물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 ㉤ 익명의 인물들에 대한 관찰 및 대화를 통해 서술자는 대상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다.

**비슬고등학교 (대구)**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염상섭의 「만세전」은 잡지 <신생활>에 연재되었으며, 원래 제목은 <묘지(墓地)>였다. 이는 1910년대 조선의 절망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악한 무단정치, 가혹한 수탈, 친일적 행적을 일삼는 무리, 지식인의 고뇌와 각성 등이 뒤섞여 있는 묘지와 같은 상태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라는 표현에서 조선을 수탈하는 부정적 세력을 묘사하고 있어.
- ㉡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통해 서술자는 조선의 절망적 현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할 수 있어.
- ㉢ '고등유민 계급의 유행병'에서 시대적 소명을 지닌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어.
- ㉣ '내 손으로 하고 싶을 만치'에서 친일적 행적을 일삼는 무리들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고 있어.
- ㉤ '독립이라는 '독'자도 없을 것'에서 가혹한 수탈로 인해 무기력해진 조선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잘하구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것 무엇 있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임은(賃銀)이 험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리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드러누워서 떡 먹기라고 꼭  
[A] 싫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빛까지 갚아 주는 데야 제 아무런 놈이기로 안 따라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험하긴 고사하고 굶어 똥진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술까지, 도도히 설명을 해 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가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별안간에 육객의 한 때가 디밀어 들어오기에, 금시초문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곰곰 생각하며 몸을 훑치기 시작하였다.

<중략>

이러한 의미로 올봄에 산문시를 쓰던, 자기의 공상과 천려(淺慮)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흠의 냄새가 방순치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가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초반 후의 낮잠은 위약(胃弱)이라는 고등 유민 계급의 유행병에나 걸릴까 보아서, 대땀밥모자에 연경(煙鏡)이나 쓰고, 아침저녁으로 호미 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詩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저러나, 일 년 열두 달, 우마(牛馬) 이상의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죽에 얼굴이 붓는 것도 시일까? 그들이 삼복의 끓는 햇볕에, 손등을 데면서 호미 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흠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주름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 뛰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유일한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청이 마르기까지, 흠에 그 땀과 피를 쏟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열 방울의 땀과 백 방울의 피는 한 알의 나락을 기른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나락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는가? 그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무엇인가. - 주름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의 밤을 품삯이다.

<중략>

여덟 눈과 네 개의 손은 앞에 뉘어 놓은 트렁크 한 개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초간의 빈틈없이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여덟 입술은 풀로 붙인 듯이, 아무도 입을 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절대 침묵이 한 칸통쯤 되는 검검한 골짜기에, 밀운(密雲)같이 가득히 찼다. 비릿한 해기(海氣)를 품은 차디찬 저녁 바람이, 쿿가로 솔솔 지날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종잇장 구기는 소리밖에, 나에게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 큰 배에 짐 싣는 인부의 소리도, 잔교 밑에 와서 부딪는 출렁출렁하는 파도 소리도, 아마 이 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무겁고 찌뿌드드한 침묵 속에 흐릿한 불빛에 싸여서, 서고 앉고 하여 꾸물꾸물하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를 건져 놓고, 검시(檢屍)나 하는 것같이, 처량하고 비장하며 엄숙히 보였다. 그러나 1분, 2분, 3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나의 머릿속은 귀와 반비례로 육신육신해졌다. 그 세 사람이, 일부러 느릿느릿하는 것은 아니건만, 빼앗아 가지고, 내 손으로 하

고 싶을 만치 초조했다. 나는 참다 해 시계를 꺼내 들고,

“인제는 2분밖에 안 남았소. 난 갈 테요.” 하고 재촉을 하였다. 그제야, 양복쟁이는 눈에 불이 나게 놀리던 손을 쉬고, 서류 멩텅이를 들어 뵈면서,

“이것만은 잠깐 내가 갖다가 보고, 맥으로 보내 드려도 관계 없겠지요?” 하고 일어선다.

㉣나는 언하(言下)에 쾌락하였다. 사실 그 속에는, 집에서 온 최근의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고와 몇 가지 원고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애를 써서 기록한 서류야. 원래 나에게에는 사회주의는 ‘사’ 자나 레닌이라는 ‘레’ 자는 물론이러니와, 독립이라는 ‘독’ 자도 없었을 것은,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보아도 알 것이었다. 아니 설령 내가 불세비기에 관한 서적을 몇백 권 가졌거나 사회주의를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의 연구라, 물론 자유일 것이요,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뇌 속을, X광선 같은 것이나 심사법(心寫法)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다음에야 조사하기로, 소용이 무엇인가. -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당장에는 하여간 무사히 방면되어 배에 오르게 된 것만 다행히 여겨, 꺾자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수습하여 가지고 나섰다.

<중략>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스한 갑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 가며 웅송그리고 섰었다. 격심한 노력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全市)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 가고 수효가 줄어 가면서, 깜작깜작 줄고 있다.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의 날날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 제, 선훈선훈 한 별보다도 점점 멀리 흐려 가는 불빛이 따듯이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요, 눈은 화끈화끈할 뿐이다.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 내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비어져 나와서, 상기가 된 좌우 뺨으로 흘러내렸다. 찬바람에 산뜻산뜻 스며들어 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섰었다.

- 염상섭, 「만세전」 -

**비술고등학교 (대구)**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거짓말로 조선인을 속여 일꾼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 ㉡ ㉡ : 농사의 어려움과 농사꾼들의 궁핍함이 드러난다.
- ㉢ ㉢ : 검열을 하는 자와 당하는 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 ㉣ : 당국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려는 서술자의 우호적 태도가 드러난다.
- ㉤ ㉤ : 현실에 대한 분노와 자조적 심경 등 복잡한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

**광희고등학교 (경기)**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만세전」은 『신생활』과 『시대일보』(1924. 4. 6~6.7)에 발표된 작품으로 연재될 당시에는 「묘지(墓地)」라는 제목이었는데, 검열에 걸려 연재 3회분이 전문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삭제된 부분을 포함한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만세전」으로 제목이 고쳐졌다.

이 작품은 3·1운동 직전인 1918년 겨울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도쿄 유학생인 주인공 이인화가 조선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는 동안 목격하게 되는 여러 현실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 착취와 궁핍 속에 사는 당시 조선인들의 실상을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 ㉡ 조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본의 비인간적 행태를 폭로하고 있어.
- ㉢ 당시 조선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각성을 유도한 것 같아.
- ㉣ 식민 통치 세력 입장에서 감추고 싶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일제의 검열에 걸린 것이겠지.
- ㉤ 등장인물들이 일본어로 대화하는 목욕탕 장면을 설정한 것은 일제의 검열을 피하려는 노력이었을 거야.

**대전대성고등학교 (대전)**

7. [A]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표현했을 때, ㉡와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조선 농민들은 일본인 노동자 모집인들의 ( ㉠ )에 속고, 술중(術中)에 빠져 ( ㉡ )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 |              |            |
|--------------|------------|
| ㉠            | ㉡          |
| ㉠ 감언이설(甘言利說) | 초미지급(焦眉之急) |
| ㉡ 감탄고토(甘呑苦吐) | 속수무책(束手無策) |
| ㉢ 사필귀정(事必歸正) | 사면초가(四面楚歌) |
| ㉣ 감탄고토(甘呑苦吐) | 초미지급(焦眉之急) |
| ㉤ 감언이설(甘言利說) | 속수무책(束手無策) |

**대전고등학교 (서울)**

8. 위 글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 ㉠ 서술자는 여행길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 처음 출발 지점인 동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보아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 서술자가 겪은 여러 에피소드는 당대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이는 다양한 식민지배의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 ㉤ 다양한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대평고등학교 (경기)**

9. 윗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시대와 사회에 대한 주인공의 분노가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ㄴ. 과거 회상을 통해 지난 일에 대한 주인공의 후회를 드러내고 있다.

ㄷ.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인물들의 대립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ㄹ. 익명화된 인물을 통해 당시 지식인의 보편적인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ㅁ.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어휘를 통해 내용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 ㄱ, ㄴ
- ㉡ ㄴ, ㄷ
- ㉢ ㄷ, ㄹ
- ㉣ ㄱ, ㄴ, ㄷ
- ㉤ ㄱ, ㄷ, ㄹ, ㅁ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겨울 나들이” 문력 명진

## 정리

<b>갈래</b>	현대 소설, 전쟁 분단 소설	<b>성격</b>	사실적, 비극적, 심리 성찰적
<b>제재</b>	전쟁과 분단의 상처, 겨울 여행	<b>시점</b>	1인칭 주인공 시점
<b>주제</b>	전쟁과 분단의 상처에 대한 증언과 그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애정의 소중함.		
<b>배경</b>	• (시간) 현재 - 1970년대 중반 겨울 / 과거 -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 때 • (공간) 서울, 온양		
<b>특징</b>	① 사건 및 인물의 말과 행동 등을 사실적으로 그림. ② 여행을 떠났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 다시 돌아오는 ‘여로 구조’의 작품임. ③ ‘오해-이해’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진실을 드러냄.		
<b>구성</b>	<b>발단</b>	‘나’는 남편이 의붓딸을 그린 초상화를 보고, 남편이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헛살았다는 느낌에 빠져 여행을 떠남.	
	<b>전개</b>	충남 온양의 온천장에 묵으며 ‘나’는 여행지에서도 서러움과 허망함을 느낌.	
	<b>위기</b>	호숫가 여인숙에서 도리질하는 노파와 그녀의 며느리인 주인아주머니를 만남.	
	<b>결정</b>	주인아주머니에게 노파의 도리질에 얽힌 사연과 소식이 끊어진 아들을 만나러 서울 가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애쓴 사정 이야기를 들음.	
	<b>결말</b>	고부의 삶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달은 ‘나’는 자신이 헛살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음.	

## 핵심 내용

### ■ <겨울 나들이>의 구성 - 역자식 구성

<b>외부 이야기:</b> ‘나’의 겨울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전쟁 중 면장이던 아주머니의 남편이 집을 떠나 처가로 피신함.</li> <li>• 아주머니는 ‘어리숙하고 고지식’한 시어머니가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싫어서’ 도리질과 ‘모른다’를 가르침.</li> <li>• 인민군이 채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옴.</li> <li>• 아주머니의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의 눈앞에서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음. 그 후로 시어머니의 도리질은 고질병이 됨.</li> </ul>
<b>내부 이야기:</b> 노파의 도리질에 얽힌 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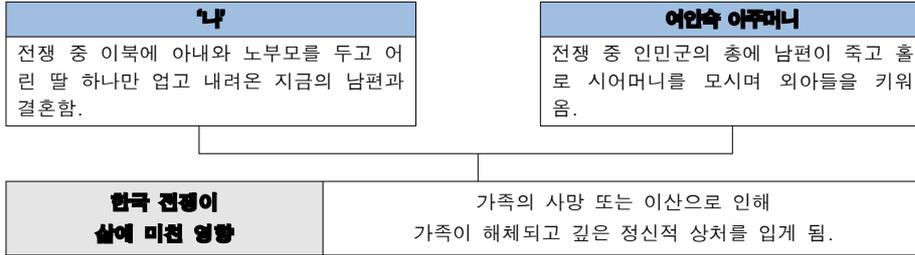
### ■ ‘나’의 심리 변화

<b>노파의 도리질을 처음 봤을 때의 생각</b>	자신을 거부하는 몸짓이라고 생각함.
↓	
<b>노파가 도리질을 하는 사연을 들은 뒤</b>	전쟁의 상처가 측은하면서, ‘나’는 아주머니가 ‘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	
<b>아주머니의 굶실굶실 하는 태도에 대한 생각</b>	밥을 팔기 위해 굶실굶실한다고 생각하여 불쾌하게 여기는 한편 측은하게 생각함.
↓	
<b>아주머니의 아들 이야기를 들은 뒤</b>	아주머니가 굶실굶실하는 이유를 알고 그녀를 연민하는 마음을 갖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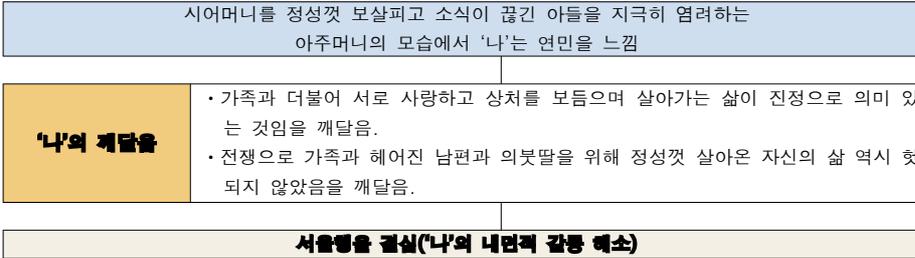
### ■ ‘대사업’의 의미

- 아주머니가 말한 노파의 ‘대사업’
    - 도리질을 멈추지 않는 일
    -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
  - ‘나’가 생각한 아주머니의 ‘대사업’
    - 그런 시어머니의 상처 입은 마음을 깊이 연민하면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 일
- ⇒ ‘나’의 대사업: 허망하지 않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고부의 삶처럼 가족과 더불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 한국 전쟁이 인물이 삶에 미친 영향



■ 여행이 끝나갈 무렵 '나'의 깨달음



<겨울 나들이>는 자신이 허망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못 견뎌 혼자 떠난 겨울 여행길에서 주인공이 우연히 만난 고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소설이다. 그 만남에서 알게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처절한 사연은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뚜렷이 보여 준다. 한편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아들의 죽음에 충격받아 정신을 놓치고 평생 도리질을 하며 살아온 시어머니를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껴안고 보살피는 며느리의 태도는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알게 한다.**

**26·25 전쟁을 다룬 우리 소설 가운데에는 이 작품과 같이 전쟁의 참혹함을 증언하면서 전쟁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내용의 작품이 많다.**

■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 사실을 새삼 알게 한다.**

등장인물인 '아주머니'가 보여 준, 고통받는 타자를 연민하여 감싸 안는 이타적 태도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의 생적 태도는 인간이 존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 **26·25 전쟁을 다룬 ... 따뜻하게 감싸 안는 내용의 작품이 많다.**

이러한 작품의 예로는 윤홍길의 <장마>, 황석영의 <한씨 연대기>,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 김원일의 <어둠의 혼> 등을 들 수 있다.

## “집을 떠났던” 막을 활영 문제

1 이 소설에 나오는 '대사업'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아주머니의 '대사업'이 뜻하는 것이 각각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예시 답안





추운 겨울에 여행을 떠나는 자신을 걱정하여 남편이 ‘하필이면 이 추운 날’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자 남편에게 가졌던 서운한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이다.

6. 아주머니는 왜 미신을 만들어 냈을까?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스스로 진정하기 위해 미신을 만들어 내었을 것이다.

7. ‘나’가 서울로 가겠다는 결정을 순식간에 내린 까닭은 무엇인가?

아주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를 연민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산의 아픔을 품고 살아 온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겨울 나들이” 구절 풀이

**㉠ 팔랫줄엔 흰 빨래가 이상한 모양으로 비껴어진 채 얼어붙어 있었다.**

추운 날씨에 젖은 빨래를 실외의 빨랫줄에 널어놓으면 얼면서 마구 비틀어져서 이상한 모양이 된다. 이 구절은 ‘나’가 몹시 추운 날씨에 여인숙에 찾아들었음을 드러낸다.

**㉡ 나는 마치 오랫동안 있고 있던 무엇인가가 다시 나에게 찾아드는 것처럼 느꼈다.**

헛살았다는 느낌에 젖어 이곳으로 떠난 주인공이 너그럽고 착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지닌 아주머니를 만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것은 저극히 비현실적인 우아함이기도 했다.**

매우 우아하지만,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보지 못한 성격의 우아함이라는 뜻이다. 우아함이란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지니고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나는 그까지 탈 한 상 꼴아서 얼마나 낯했다고 저렇게 급실대나 싶이 속으로 속은했다.**

‘나’는 아주머니가 얼마 안 되는 돈을 바라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불편하다 못해 가여운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 장에 식힌 것일이나 ... 밥상 갈아서 호뜻했다.**

‘나’는 정성을 기울여 만든 정갈한 음식을 대하고 아주머니에 대한 오해와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게 된다.

**㉥ 그녀의 시어머니는 ... 도리머리를 이저렇게 혼돈다.**

몸 상태와 마음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25년 동안 계속해 온 노파의 도리질에 대한 설명이다. 도리질이 노파의 마음 깊이 맺힌 한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 준다.

**㉦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하도 험한 세상이어서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잘 적응하여 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 이어서 죽은 듯한 경적이 왔다.**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던 마을에 비행기가 날아와 공격했다는 것으로 보아 유엔군의 공격이라고 추측 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엔군의 공격으로 인민군이 물러나고 난 뒤의 고요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

인민군이 물러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때라는 뜻이다.

**㉩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 며칠을 더 떠돌았느냐는 거였다.**

1950년 9월 28일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의 여세를 몰아 서울을 다시 되찾았는데 이를 서울 수복이라고 한다. 성질이 급한 아주머니의 남편은 서울 수복으로 인민군은 허리가 끊긴 셈이니 서울 아래에 있던 인민군이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집에 돌아온 것이다. 이 구절에는 걱정하는 가족에게 걱정할 것 없다고 큰소리치는 젊은 가장의 모습도 담겨 있다.

**㉪ 시어머니가 뉘안간 젖어지는 소리를 냈다. ...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비행기 공습을 앞세운 유엔군의 공격에 밀려 후퇴하기 직전의 상황이기에 인민군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자 그들도 놀랐던 것이다.

**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가족이 겪은 비참한 과거사를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말한다는 것은 아주머니의 인품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오랜 세월 그 상처를 견뎌 와 이제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㉕ “이걸 고쳐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단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만이에요.” ... 동굴에 권율이 지나갔다.**

아주머니는 노파가 도리질을 반복하는 것을 ‘대사업’이라고 말하며 이를 완수하시고 돌아가는 날까지 돕겠다고 한다. ‘나’는 아주머니가 사명감과 긍지를 지니고 노파를 돕는 것이야말로 ‘대사업’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감동받는다.

**㉖ 아주머니는 내가 불쾌할 만큼 ... 비굴하게 구나 싶었다.**

아주머니가 다시 굶실굶실한 태도를 보이자, ‘나’가 그것이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이다. 나중에 ‘나’는 아주머니가 무엇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게 되는데, 이 오해는 이후의 이해를 더욱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㉗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가 ... 이색하게 곱씹어 더 보기 좋았다.**

‘나’가 ‘비굴한 태도’라고 생각한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㉘ 그렇지만 학비라도 보낸다고 아이들을 달아 가르치고 있어 못 내리오조.**

이 작품의 시간 배경은 대학생의 과외가 자유로웠던 1970년대이다. 아주머니의 아들은 어머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방학에도 과외를 해서 돈을 버느라 서울에 있었던 것이다.

**㉙ 괜히 은갖 땅경맞은 생각이 다 나지 않나.**

아주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는 뜻이다. 전쟁 때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㉚ 그런데 손님이 내가 만든 미신의 좋은 즉 고풍하게 돼 주신 거죠.**

‘나’ 때문에 서울행 노자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아들에게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믿게 되었다는 뜻이다.

**㉛ 나는 불행뚝 ... 경건하게 보냈다.**

여인숙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함께 비참한 일을 겪었고 그로 인한 상처를 함께 견디며 살아 온 가장 친한 사이이다. ‘나’는 그런 두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경, 감동의 마음을 그들이 마주잡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는 행위로 표현하였다.

## “집을 다들인” 읽고 감상

박완서 소설에서의 분단 문제

박완서는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빠를 잃은 비통한 가족사를 여러 편의 소설에서 다루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엄마의 말뚝 2>로 이상문학상(1981년)을 수상하였다. 다음은 ‘수상 소감’의 한 부분이다.

우리 겨레의 분단은 이제는 하나의 기정사실입니다. 분단은 오래전에 피 흘리기를 멈추고 굳은 딱지가 된 채 통일을 꿈꾸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통일이란 말은 도처에 범람하고 있습니다만 산 채 분단된 자의 애절한 꿈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구호로서 행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일이 직업인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구호를 만들어 내어 분단을 치장하면 되겠지만 진실로 통일이 꿈인 사람은 끊임없이 분단된 상처를 쥐어뜯어 괴롭게 피 흘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토막 난 채로 아물어 버리면 다시는 이을 수 없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아물었으되 피 흘리고 있음을, 딱지 앓았으되 고통 있음을, 잘 차려입었으되 헐벗었음을, 춤추고 있으되 몸부림치고 있음을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것도 문학이 숙명처럼 걸머진 형벌이자 자존심이라면 저도 잠시 한날 비통한 가족사를 폭로한 것 같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늠름해지고자 합니다.

- , <너에게 소설은 무엇인가>에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의 남편은 난리 통에 어린 딸 하나만 데리고 남쪽으로 온 이북 출신으로, 북쪽에 아내를 두고 온 사람이다. 나는 그와 결혼하여 엄마를 잃은 어린 딸아이를 보살펴 출가시키기 까지 제 아이와 다름없이 키웠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이 그린 딸의 초상화를 보고, 남편이 헤어질 당시 젊었던 전처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남편과 살아온 세월이 헛되다는 느낌에 빠진다. 나는 마음을 달래고자 무작정 온천이 있는 온양으로 여행을 떠나왔으나 모두로부터 쫓겨난 듯한 기분에 마음이 내내 불편하다.

그러더니 친동기간처럼 스스럼없이 나를 안채로 잡아끌었다. 난로가 있는데도 뺑 돌려 방장을 쳐 놔서 안방은 마치 동굴 속처럼 침침하고 아늑했다. 처음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차츰 어둠에 눈이 익자 아랫목에 단정히 앉았는 한 노파를 볼 수 있었다. 미라에다 옷을 입혀 놓은 것처럼 바짝 마른 노파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나를 거부하는 몸짓 같아서 나는 어색하게 멍치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한사코 나를 아랫목으로 끌어다 앉히고 손을 노파가 깔고 있는 포대기 밑에 넣어 주었다. 노파의 입이 조금 웃었다. 그러나 고개를 저어 도리질을 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우리 시어머니예요, 하고는 노파에게 손님이예요, 하도 추워하시기에 안방으로 모셨어요, 했다. 그것으로 노파와 나와 의 인사 소개는 끝났으나 노파는 여전히 도리질을 해 쌓았다. 아주머니는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노파는 수척했으나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쪽 찌고, 동정이 정갈한 비단 저고리에 폭신한 모직 스웨터를 걸치고 꽃꽂이 앉았는 모습에 특이한 우아함이 있었다. 그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우아함이기도 했다. 도리질도 처음 내가 봤을 때보다 훨씬 유연해서 꼭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 저러다가 멋으려니 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멋지는 않았다. 몸이 녹자 잠이 오기 시작했다. 누가 죽인대도 우선 한잠 자 놓고 볼 일이다 싶게 꿀 같은 잠이 덮쳐 왔다. <중략>

그것은 6:25 동란 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 놓는다는 게 암만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이십 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갑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짓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미더워지기 시작했다. 어수룩하고 고지식하 기간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싫어서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셈을 익혀 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야밤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입 한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세상이에요. 큰댁 식구들이나 작은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단구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 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 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 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중략>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예요.”

소름이 쪽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영겁결에 뛰어났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패잔병인 듯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 서너 명이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가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던 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 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탄사람같이 드높고 새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패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여 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 드리다니요? 어떻게요?”

“당신 임의로는 못 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 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 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 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 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궁지로 아주머니의 얼굴 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㉔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중략>

“미신이라뇨?”

“네, 주책이죠. 오늘 우리 여인숙에 손님이 들어 그 돈으로 노자를 해 갖고 서울 가면 아들의 신상에 아무 일이 없을 게고, 콩콩 뭉쳐 놓은 돈을 헐어서 노자로 쓰게 되면 아들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게고, 뭐 이런 거랍니다. 이렇게 정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려니 어쩌나 초조하고 애가 타는지 혼났어요. 그런데 ㉔손님이 내가 만든 미신의 좋은 쪽 점괘가 돼 주신 거죠.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또 한 번 고마워했다. 나는 그런 기묘한 방법으로 외아들의 신상에 대한 크나큰 근심을 달래려 들었던 이 과부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찼했다. 내가 점괘가 됐다는 게 조금도 언짢지 않았다.

“그럼 곧 떠나시겠네요.” <중략>

나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 잡고 있는 고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 보고 싶어졌다. 남남끼리이면서 가장 친한 두 손, 대사업의 동업자끼리이기도 한 이 두 손 사이를 맥맥이 흐르는 그 무엇을 직접 내 손으로 맥 짚어 보고, 느끼고, 오래 기억해 두고 싶었다. 마치 ㉔이 세상 온갖 것 중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에 닿아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듯이 나는 감지덕지 그 일을 했다. 거칠지만 푸근한 두 손 위에 내 유약한 한 손이 경건하게 보태졌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노파는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었지만 나는 노파가, “너는 결코 헛살지만은 않았어. 암, 헛살지 않았고말고.” 하는 것처럼 느꼈다.

- 박완서, 「겨울 나들이」

**대진고등학교 (서울)**

1. 위 글의 작가와 작품 속 등장인물이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작가 -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 아픔은 아직 우리 삶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 ㉒ '나' - 네. 저도 북쪽에서 월남한 남편과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직 북쪽에 있는 전처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 ㉓ '나'의 남편 - 가족을 위해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㉔ 작가 -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거의 실성하다시피 해서 전쟁 전부터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신 아주머니도 한 말씀 하시죠.
- ㉕ 아주머니 - 가엾은 시어머니를 제가 끝까지 정성을 다해 모셔야겠다고 다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진고등학교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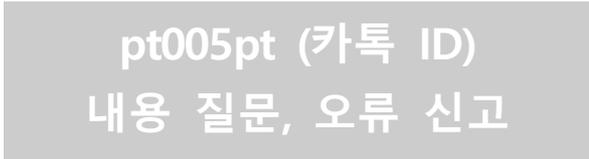
2. ㉑ ~ 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㉑ - '나'는 노파가 자신을 거부하는 몸짓이라고 생각하여 어색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㉒ ㉑ - 흥흥한 세상이어서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잘 적응하여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 ㉓ ㉑ - 자신의 바로 앞에서 아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충격으로 전쟁으로 인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의미한다.
- ㉔ ㉑ - 아주머니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다녀오는 동안 노파가 혼자 편안히 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㉕ ㉑ -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의미한다.

**대진고등학교 (서울)**

3. ㉑, ㉕가 의미하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각각 서술하시오.

<조건>
1.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사용할 것. 2. '~는 것'의 형태로 끝마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주머니가 먼저 노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노파의 이상한 도리질에 대해 물을 수가 있었다.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별써 이십오 년 동안이나 그러고 계신걸요.”

“이십오 년 동안이나!”

나는 기가 막혀서 벌린 입을 못 다물었다.

“네, 이십오 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자는 시간만 빼놓고…….”

나는 아주머니의 눈이 젖어 오는 것처럼 느꼈으나, 말씨는 침착하고 고즈넉했다. <중략>

그것은 6·25 동란 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짧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 놓는다는 게 안전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이십 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감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짓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미더워지기 시작했다.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셈을 익혀 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아범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입 한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큰댁 식구들이나 작은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 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 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썩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별안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실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 뿜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몰러갔다는 증거도 안 몰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세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꽃이엔 아직도 그쪽 기가 펠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짓 것들이 여기서 버터 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는 거였다.

털발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 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다 말예요.”

소름이 쪽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영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패잔병인 듯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가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 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탄사람같이 드높고 쉿한 소리로 되풀이했다. 패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어 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기를 쓰고 흔들어 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박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 드리다니요? 어떻게요?”

“당신 임의로는 못 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 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 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 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 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

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 박완서, 「겨울 나들이」 -

**배곧고등학교 (경기)**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서술자는 중심인물이 겪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 ㉢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을 통해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 서술자의 의문과 오해가 풀려 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 내부 이야기의 중심 사건을 체험한 주체와 작품의 서술자가 일치하고 있다.

**배곧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할머니의 도리질'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이십오 년 동안이나 도리질을 하면서 힘들게 살 수 밖에 없었던 할머니가 참 불쌍해.
- ㉡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져.
- ㉢ 아들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여기는 데서 오는 자책감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 ㉣ 자신에게 '모른다'는 연습을 시켜 결과적으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머느리에 대하여 반감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보여.
- ㉤ 온전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겠지만, 할머니의 도리질은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 돼.

**배곧고등학교 (경기)**

6. ㉠과 ㉡이 의미하는 것을 각각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서울고등학교 (서울)**

7. ㉠'흐르는'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예문을 <보기>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단, 한 문장만 쓸 것)

<보기>

온몸에 땀이 흐른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감나무 잎사귀에 윤기가 흐른다.  
 오늘따라 옷차림에 촛티가 흘렀다.  
 밤하늘에 흐르는 달빛을 좋아한다.  
 외할아버지는 외곶으로만 흐르는 성격이다.  
 고무줄이 끊어져서 체육복 바지가 흘러 버렸다.  
 이 전신주에는 고압 전류가 흘러 매우 위험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것은 6:25 동란 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 놓는다는 게 암만해도 불안했다.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이십 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감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은 점점 더 못되게만 돌아가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짓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날이 없었다. 끔찍한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미더워지기 시작했다. 어수룩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셈을 익혀 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아범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입 한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큰댁 식구들이나 작은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뿐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니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질까지 곁들여 가며 거둬들여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 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 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썩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별안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실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 뉘듯이 나더니만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간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세도 부리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 위원회가 쓰던 이장 집 마당 깃대꽃이엔 아직도 그쪽 기가 펠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짓 것들이 여기서 버터 봤잖아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는 거였다.

텃밭엔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 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러 나갔던 시어머니가 별안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다 말예요.”

소름이 쪽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패잔병인 듯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지려고 나타났다가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 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탄사람같이 드높고 새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패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나)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도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 드리다니요? 어떻게요?”

“당신 임의로는 못 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 잡숫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 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 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 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 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점심값과 방값이 도합 팔백 원이라고 했다. 나는 천 원을 내주면서 그냥 넣어 두세요, 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불쾌할 만큼 굽실굽실 고마워했다. 아까 점심을 시킬 때도 그랬지만 통틀어 천 원인데 몇 푼 떨어지겠다고 저렇게 비굴하게 구나 싶었다.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가 싫은 건 그만큼 내가 아주머니를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는 몸에 배지 않고 어색하게 곁돌아 더 보기 흥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준 돈 천 원을 소중하게 스위트 주머니에 넣고 나더니 지극히 안심스럽고 감사한 얼굴을 하고는 또 한 번 이상스러운 소리를 했다.

“이걸로 노자 해 가지고 서울 갈 겁니다. 오늘요.”

“서울을요? 왜요? 하필이면 이 추운 날.”

나는 나중 이 추운 날 소리를 하고는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남편이 놀라면서 나에게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내가 했구나 생각했다. 문득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졌다.

- 박완서, 「겨울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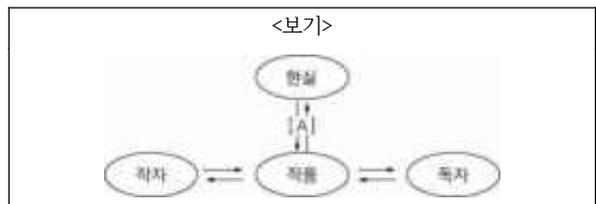
**서울고등학교 (서울)**

**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아주머니를 대하는 ‘나’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 ㉡ ‘서울’에 대한 ‘아주머니’와 ‘나’의 시각차가 드러나 있다.
- ㉢ 남편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있다.
- ㉣ 직접 인용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 ‘아주머니’의 언행이 ‘나’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서울고등학교 (서울)**

**9. <보기>의 [A] 관점에서 (가)와 (나)를 감상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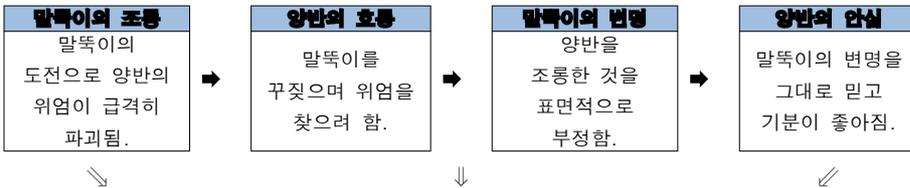
# “말뚝 뺨뺨” 말뚝 뺨뺨

## 정리

<b>갈래</b>	가면극(탈춤) 대본	<b>성격</b>	풍자적, 해학적, 서민적
<b>제제</b>	양반과 말뚝이의 대결	<b>주제</b>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
<b>특징</b>	① 익살, 과장, 언어유희 등을 사용하여 풍자가 이루어짐. ②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음. ③ 재담마다 한데 어울려 추는 춤과 음악으로 긴장과 갈등이 해소됨. ④ 서민적인 비속어와 양반 투의 한자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언어 사용의 양면성을 보임.		
<b>구성</b>	<b>발단</b>	<b>인물들의 등장</b>	멍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말뚝이가 비정상적인 모습을 한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함.
	<b>전개1</b>	<b>말뚝이의 재담</b>	말뚝이가 양반 소개, 담배 금지 등의 재담을 통해 양반을 조롱함.
	<b>전개2</b>	<b>양반들의 허세 폭로</b>	시조 읊기, 한시 짓기, 파자 놀이 등을 통해 양반의 무식함을 드러냄.
	<b>전환</b>	<b>취발이 잡아들이기</b>	취발이를 잡아들이라는 양반들의 명령에 따라 전령으로 취발이를 잡아들이고 심문함.
	<b>결말</b>	<b>인물들의 퇴장</b>	등장인물들이 춤을 추면서 퇴장함.

## 핵심 내용

### ■ 작품의 재담 구조와 풍자성



말뚝이가 겉으로는 양반의 권위에 굴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을 조롱하는 재담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풍자하는 것임.

### ■ 양반의 모습과 행동에 담긴 의도

<b>양반의 모습과 행동</b>	→	<b>의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 비정상적인 모습</li> <li>· 도련님은 대사 없이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굶. → 방정맞은 행동</li> </ul>		양반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 조롱, 희화화하려는 장치

### ■ ‘쉬이’와 ‘춤’의 기능

<b>쉬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림.</li> <li>· 극적 분위기를 조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반주)과 춤을 멈추게 함.</li> <li>·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킴.</li> </ul>
<b>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를 알림.</li> <li>·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부각함.</li> <li>· 재담과 재담 사이를 구분함.</li> </ul>

### ■ 관객과 악공의 역할

<b>관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반에 대한 말뚝이의 희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말뚝이와 한편이 되어 극 중 현실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함.</li> </ul>
<b>악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판의 배경 음악을 제공하고 장단을 맞추며 때때로 등장인물의 물음에 대답을 하기도 함.</li> <li>· 관객과 마찬가지로 말뚝이와 한편이 되어 극에 능동적으로 개입함.</li> </ul>

■ 등장인물의 역할과 신분

<b>말뚝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거지, 채찍 → 마부 암시</li> <li>• 재치 있는 언행을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비판함.</li> </ul>	→	<b>평민들의 대변자 (농자 주제)</b>
<b>양반 삼 형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 장죽 → 양반의 권위</li> <li>• 우스꽝스러운 외모와 언행을 통해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냄.</li> </ul>	→	<b>무능한 양반의 전형(농자 대상)</b>
<b>취발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힘이 세고 날랩.</li> <li>• 국고금을 횡령한 죄를 무마하려고 양반에게 돈을 냄.</li> </ul>	→	<b>신용 풍산흥 계급의 전형</b>

■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

-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야’ → ‘전령’은 당시에 여전히 신분 질서의 위력이 남아 있었고 양반의 권위가 견재했음을 암시한다.
- 또한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여 부패한 사회상을 나타낸다.

■ 작품에 나타난 가면극의 특성

<b>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음.</b>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여보, 악공들 들으시오.’
<b>무대 장치가 없음.</b>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b>장면 전환이 자유로움.</b>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b>양반의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함.</b>	양반들의 부정적인 걸모습과 행동, 양반의 뜻풀이, ‘노새 원님’이라는 표현

## “똥안 똥똥” 똥똥 똥똥 똥똥

1 < **활동** > 제6 과정의 주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각 장면에 형상화된 양반의 모습을 파악해 보자.

장면 1



<양반 삼 형제와 말뚝이의 재담>

- 재담의 소재  
양반, 당배, .
- 양반 찾기, 새처 정하기

- 장면에 형상화된 양반의 모습  
권위만 앞세우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모습

장면 2



<생원과 서방의 재담>

- 재담의 소재  
시조 읊가와 한시 짓기, 파자 놀이

- 장면에 형상화된 양반의 모습  
권위만 앞세우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모습

**2 함께 <봉산 탈춤>에 드러난 탈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1) 이 작품의 등장인물인 탈락이의 대사이다. 여기에 드러난 탈춤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꿸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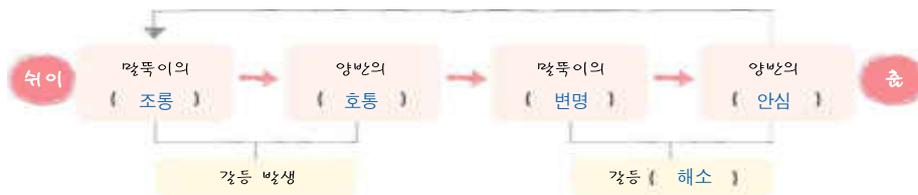
- ‘구경하시는 양반들’이나 ‘여보, 악공들’에서 볼 수 있듯이 탈춤에서는 악공과 관객이 극의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어.
- 탈춤은 악공과 관객이 극에 참여함으로써 친근하고 신명나는 놀이판이라고 할 수 있어.
- 채찍으로 원을 그리면서 말로만 공간을 설명한 것으로 새처를 지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탈춤은 특별한 무대 장치나 소품이 따로 없는 것 같아.
- 탈춤은 공연 장소와 극 중 장소가 엄격하게 나뉘지 않고 융통성 있게 활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탈춤이 벌어지는 실제의 공간이 공연 장소이면 서, 작품 속의 상상적 공간이 될 수 있어.

**(2) 다음과 같은 탈락이의 대사에는 탈춤을 보고 즐기던 당시 서민들의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자.**

-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하여 말뚝이 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밭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틈틈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곁곁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3 <탈춤> 제6 과정의 앞부분에는 동일한 구조를 지닌 재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재담 구조와 관련하여 모둠원들과 함께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재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쉬이’와 ‘춤’의 기능에 관해 생각해 보자.**



- 쉬이: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림,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킴,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함.
- 춤: 각 재담을 구분함, 말뚝이와 양반의 일시적 갈등 해소를 알림,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함.

**“당신 말씀” 읽고 생각 정리**

**1. 탈락이의 말이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양반의 ‘양’과 ‘반’이 ‘개잘량’과 ‘개다리소반’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즉 ‘양반’의 뜻을 풀이하면서 양반을 보잘것없는 것과 연결시켜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다.

**2. 장면을 전환할 때 사용되는 극의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의 재담이 끝난 뒤 인물들이 춤을 추면서 상황을 마무리하고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 뒤 ‘쉬이’라는 말에 맞추어 음악과 춤이 멈추면서 새로운 재담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다.

## “말뚝이님” 수필 읽기

### Ⅰ 쓰고 재력을 풀었다.

병거지는 주로 병졸이나 하인이 쓰던 모자이다.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것으로 보아 말뚝이가 신분이 낮은 마부(馬夫)임을 알 수 있다. 마부는 양반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가 많으므로 양반의 내막을 잘 알아, 양반을 풍자하기에 적절한 인물이다.

### Ⅱ 샌님과 서방님은 인경이이며 ...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명경맞게 군다.

양반 삼 형제의 외양 묘사를 통해 무능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도련님이 형들의 얼굴을 부채로 때리는 장면은 양반의 근엄한 태도가 허세이며 거짓임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양반들을 희화화하는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Ⅲ 개걸방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란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 뜻풀이 재담은 극에 나타나는 첫 번째 재담으로, 말뚝이가 양반에 대해 풍자하고 있는 대목이다. ‘양반’의 뜻풀이를 엉뚱하게 함으로써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서민 의식이 담겨 있다.

### Ⅳ (말뚝)이 생원이라네.

겉으로는 근엄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말뚝이의 변명에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양반들의 언행을 통해 양반들의 우매함을 폭로하고 있다.

### Ⅴ 어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함 좀 물어 보시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탈춤의 특성을 알 수 있다. 탈춤 공연에서 관객은 방관적인 제3자로 머물지 않고 극의 상황에 참여하고 개입한다. 이를 통해 현실적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더 신명나고 친근한 놀이판을 만들 수 있다.

### Ⅵ 잘마만 곰방대로 짚숫지 말고 ... 낚시 걸뚝 꼭 걸어 놓고 걸수시오.

조선 시대 평민들은 양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또한 50cm 이상의 길이였던 장죽은 양반들이 사용하던 것이며, 장죽이 서민들에게 넘어오면서 곰방대로 간소화되었다. 그런데 말뚝이는 평민인 관객들에게 짚마란 곰방대가 아닌 양반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담뱃대로 담배를 피울 것을 권하고 있다. 담뱃대의 길이가 신분을 나타내는 사회에서 평민들에게 양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권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한 것이다.

### Ⅶ 오음 속물(五音大物) 다 때리고 ...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장단’을 소재로 한 재담으로,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대목이다. ‘바가지장단’은 바가지를 얹어 놓고 치는 장단이다. 말뚝이는 예법을 갖춘 음악을 버리고, 양반들의 권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훌뚜기(버들피리)를 붙고 바가지장단을 치라고 하여 양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

### Ⅷ 마구간에 풀이 가 노새 원님을 끌다가 동에 술걸을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노새 원님’은 ‘노 생원님’과 발음이 유사한 것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노새 원님을 탔다는 것은 결국 마부인 말뚝이가 양반인 생원을 타고 다녔다는 말이 된다. 양반인 생원을 노새로 끌어내려 희화화한 것이다.

### Ⅸ 샌님 떠먹는 놔도 없습디다.

양반을 찾으러 가 볼 만한 데는 다 가 보았지만 양반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양반다운 양반’이 없는 현실을 비꼬고 있다. 앞에서 말뚝이가 자신을 ‘말뚝이님’이라고 한 것과 반대로, 샌님은 ‘놈’으로 낮춰 부른 것에서 이러한 비판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양반의 말에 대꾸하면서 격식과 예의를 갖춰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대신 ‘없습디다’라고 함으로써 격식을 차리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며 나아가 말뚝이의 반항감도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Ⅹ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 새지를 잡아 왔습디다.

말뚝이가 채찍으로 그리면서 묘사한 ‘새치’는 마구간으로, 이를 통해 양반을 짐승과 동일시하면서 양반을 비하하고 있다. 한편 말뚝이가 몸짓과 언어로만 공간을 표현한 것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따로 없는 탈춤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 Ⅺ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주루 선경에 띄지 풍물이다 축축 축이 왔습디다.

‘삼털 같은 칼담배’는 거칠게 썬 담배를 말한다. 말뚝이는 앞에서는 양반이 주로 쓰는 한자어 어휘를 사용하여 양반의 호령에 비위를 맞추는 듯하다가 뒤에서는 양반의 위신에 맞지 않는 평민의 비속한 어휘를 사용하여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㉔ 본시 양반이라 ... 한 수리 풀러 보세.**

마구간처럼 묘사된 새처방 안에 앉아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양반들은 시조를 읊으면서 자신들의 우월 의식과 신분을 과시하고자 한다.

**㉕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주로 서민들이 즐겨 부르던 잡가 ‘성주풀이’의 한 구절이다. 양반들이 유식함을 자랑하려고 읊은 시조가 말뚝이가 부른 잡가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양반들의 교양의 허구성과 자기 과시를 비판하고 있다.

**㉖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천(黃川) 풍산(豊山)에 동선명(洞仙鳴)이라.”**

운자로 제시된 ‘산’과 ‘영’을 맞추어 한시를 짓기는 하였지만, 한시의 형태에 맞지 않고 ‘울룩줄룩’이라는 우리말 의태어를 사용하였으며, 황해도 지방의 지명을 단순하게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양반들의 전유물인 한시 짓기를 통해 양반 문화의 우월성을 과시하려 한 모습이 결과적으로 양반들의 학식과 교양이 허구적임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㉗ “질세기 앞창은 명경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뿔뿔이라.”**

생원이 지은 한시와 마찬가지로 ‘총’과 ‘뿔’이라는 운자를 맞추기에 급급할 뿐, 한시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양반들은 스스로 허위와 허세를 드러내면서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㉘ 주몽이는 허랑고 곱풍이는 알박달떡만 자가 무슨 자나? ... 그것은 논 임자가 아닌가?**

파자(破字)는 한자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수 있는 놀이이다. 하지만 서방과 생원은 ‘피마자’와 ‘논 임자(논 주인)’와 같이 단순히 ‘자’자로 끝나는 말을 맞히는 수준 낮은 수수께끼를 주고받고 있다. 자신들의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한 의도로 한 파자 놀이가 오히려 그들의 무식함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㉙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풀이와 뽀뽀 구석에 서 있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하여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취발이가 놀이판에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한쪽 구석에 있도록 하여 양반들과 다른 극 중 장소에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무대 장치가 따로 없는 탈춤의 특성을 보여 준다.

**㉚ 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읊는저 거저는 잡아 읊 수 없습니다.**

‘전령’은 명령을 전하는 증서로, ‘샌님의 전령’이 있어야 힘세고 날랜 취발이를 잡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당대에 양반의 권위가 아직 견재함을 보여 준다.

**㉛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풀어서 밀구녕에도 갖다 딱아라.**

‘밀구녕’은 ‘밀구멍’의 사투리로 향문을 뜻한다. 상스럽고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양반들의 폭력성과 횡포를 고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㉜ 시대가 급변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던 뭇 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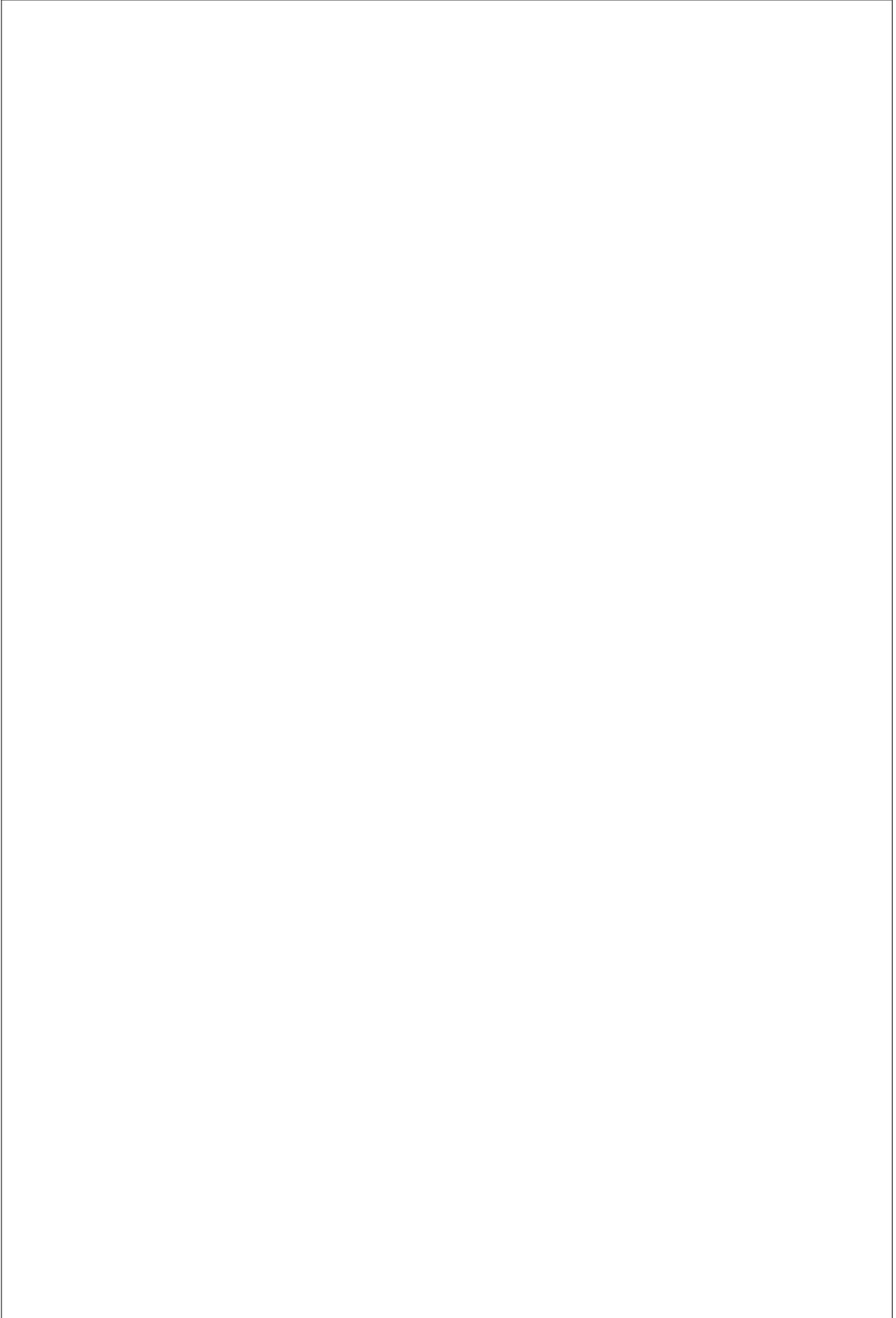
말뚝이가 취발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풀어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돈에 약한 양반의 심리를 이용하여 양반을 회유하는 말로, 청빈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양반들의 물욕(物慾)과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㉝ 권님은 못 본 채하고 가련히 계시면 ... 그리 알고 계시오.**

돈을 받고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양반의 모습을 암시하여, 양반의 부패상을 풍자하고 있다.

**■ <봉산 탈춤>**은 황해도에서 전승되어 온 가면극으로 춤, 노래, 대사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다. 중요 무형 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락성과 예술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비는 제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한 양반, 파계승, 가부장적 남성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약 1개월간 절에서 합숙하며 연습을 한 뒤 오월 단오날 등에 공연하였다고 한다. <봉산 탈춤>은 일곱 과장(科場: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교과서에는 제6 과장 ‘양반춤’을 실었다. ‘양반춤’은 ‘새처를 정하는 놀이’, ‘시조 짓기와 파자(破字) 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뚝이와 양반 삼 형제가 주고받는 말이 극을 이끌어 간다. 양반들을 조롱하는 말뚝이의 말과 행동이 특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양반·말뚝이춤’이라 부르기도 한다.

3-(3) 봉산 탈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退老) 재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질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A]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짚따란 공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簾)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B]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건건드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매주 밧드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곁 곁이 다 찾아다녀도 생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중략>

생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났습디다.

생원 : 이놈, 뭐야! <중략>

생원 :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록줄록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중략>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록줄록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람이 비호(飛虎) 같은데, 생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 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여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녀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녀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㉔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샌님, 말씀 들으시오. ㉕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 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긱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광남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나타난 말뚝이의 말하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재담을 시작하는 말을 하며 극의 전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 ㉒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을 바꾸며 대상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 ㉓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㉔ 동일한 음절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㉕ 경어체를 사용하여 겉으로는 대상을 높이면서도 이면적으로 대상에 대한 조롱을 드러내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봉산탈춤이 공연되던 당시에는 서민들이 지배층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을 풍자하여 그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을 웃게 하였는데, 이는 '비판적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 ㉑ '개질량', '개다리소반' 등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양반들의 위엄을 격하시킴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㉒ '한 발 가웃'이나 되는 '육모깍지' 등을 맞추어 양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양반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㉓ '버드나무 홀뜨기', '바가지장단'과 같이 양반의 신분에 어울리는 소재를 활용하여 양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㉔ '노새 원님'을 '말뚝이님 내'가 탄다는 표현을 통해 양반과

말뚝이의 상하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㉑ '울장'을 꽃아 '깃'을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에 대한 묘사를 통해 양반을 가축으로 비하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㉑~㉕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㉑ : 시조와 주제가 같은 민요를 부름으로써 양반의 허세가 자연스레 드러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 ㉒ ㉒ : 학식을 자랑하는 놀이는 결국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로 전략하고 있다.
- ㉓ ㉓ : 기존의 신분적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통해 양반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㉔ ㉔ : 당대에도 양반들의 횡포로 인해 고통 받는 피지배층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㉕ ㉕ :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상을 근거로 부정을 저지른 취발이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의 [A], [B]를 바탕으로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민속극이란 분장을 한 배우가 대화와 몸짓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이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전해져 온 민간 전승의 연극이었기 때문에 민속극의 대사는 고정된 대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윗글의 [A], [B]에서 볼 수 있듯이 민속극은 서양의 연극과 다르게 \_\_\_\_\_ 이와 같은 민속극의 특징을 바탕으로 공연의 상황에 따라 즉흥적 대사를 함으로써 민속극의 형식과 내용은 전승되면서도 공연을 통해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退老) 재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째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簾)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중략>

생원 : 쉬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들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밧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틈틈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생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나) 생원 : 쉬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다)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뿔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랜이 비호(飛虎) 같은데, 생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 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생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생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여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생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김진옥·민천식 구술, 「봉산탈춤」

오금고등학교 (서울)

5. (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뚝이 : (버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말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께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나)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짚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塵)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 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دت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라)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밭뚝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걸결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뚤한 놈도 없습디다.

(마)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 황해도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극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면극 중 하나이다.
- ㉡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명확하여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 가면의 힘을 빌려 실제 사회에서의 귀천이나 상하 관계의 틀을 깨고 하층민의 울분을 해소하는 구실을 한다.
- ㉣ 양반의 위엄-말뚝이의 조롱-양반의 호통-말뚝이의 변명-양반의 안심 순으로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된다.
- ㉤ 모순되고 억압된 현실을 폭로하고, 한편으로 웃음을 유발하여 감정을 정화하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중 해학과 풍자가 담겨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10.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 (가) -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 인물 소개 부분으로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 ㉡ (나) - ‘양반’이라는 단어의 뜻풀이에 대한 재담으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 ㉢ (다) - ‘담배’와 ‘흰화’에 대한 재담으로 말뚝이의 거짓 해명에 속는 어리석은 양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 (라) - ‘말뚝이’의 양반 찾기 재담으로 언어유희, 과장, 열거, 대구 등의 다양한 표현법이 쓰인다.
- ㉤ (마) - 운자 놀이를 통해 ‘말뚝이’가 양반의 무지와 허세를 폭로하고 있다.

문헌여자고등학교 (부산)

1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의 효과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 “파수꾼” 분석 정리

## 정리

<b>갈래</b>	현대 희곡, 단막극	<b>성격</b>	풍자적, 우화적, 상징적
<b>제재</b>	촌장과 파수꾼 이야기	<b>주제</b>	거짓 현실에 대한 비판, 진실을 밝히는 일의 소중함과 어려움
<b>특징</b>	① 널리 알려진 이숙 우화 ‘양치기 소년’을 바탕으로 현실을 우화적으로 다룸. ②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인물들과 소재를 다룸. ③ 해설자가 극에 등장하여 작품 내용을 설명하고, 한 배우가 여러 역을 맡으며, 관객들이 작중 인물을 대신하는 등 실험극의 성격을 보여줌.		
<b>구성</b>	<b>발단</b>	망루에 새로 온 ‘파수꾼 다’가 기존의 ‘파수꾼 가’, ‘파수꾼 나’와 함께 파수를 보게 됨.	
	<b>전개</b>	‘파수꾼 다’는 ‘파수꾼 가’가 보았다고 외치는 ‘이리 떼’가 사실은 ‘흰 구름’임을 알게 됨.	
	<b>위기</b>	‘파수꾼 다’는 자신이 본 것을 쪽지에 적어 운반인에게 맡기고, 이를 촌장에게 전해 달라고 함.	
	<b>결정</b>	‘파수꾼 다’의 쪽지를 읽은 촌장은 ‘파수꾼 다’를 찾아오고, 촌장의 회유에 넘어간 ‘파수꾼 다’가 진실 밝히기를 하루 늦춤. ‘이리 떼’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망루 앞으로 몰려들었으나 ‘파수꾼 다’가 결국 진실을 밝히지 않음. (교과서 수록 부분)	
	<b>결말</b>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일생을 망루에서 보내야 한다고 말함.(교과서 수록 부분)	

##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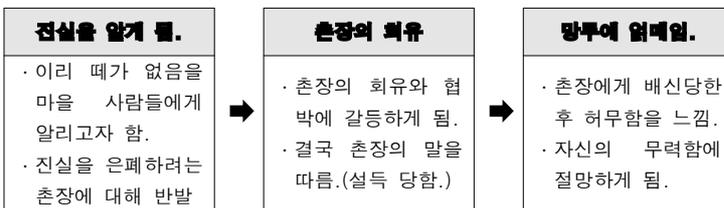
### ■ 작품에 나타난 소재의 상징적 의미

<b>이리 떼</b>	꾸며낸 거짓,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지배 이념
<b>흰 구름</b>	이리 떼의 실체로 거짓에 가려진 진실을 가리킴.
<b>망루, 양철 북, 깃발</b>	거짓으로 꾸며낸 이리 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들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들. 민중 통제의 수단
<b>말기</b>	부당한 권력으로 얻은 이익이자 상대방(파수꾼 다)을 설득하기 위한 회유책
<b>도끼</b>	권력자가 민중을 협박하기 위해 언급하는 대상

### ■ 실험극으로서의 특징

특징	작품 내용
해설자가 극에 등장하여 작품 내용을 설명함.	해설자 (관객들에게 누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
한 배우가 여러 역을 맡음.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관객들이 작중 인물을 대신함.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 ■ ‘파수꾼 다’의 심리 태도 변화



■ 이 작품에 나타난 관객 참여의 효과

**'마을 사람들' = 관객**

- ①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있는 희곡의 제약을 극복함.
- ②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극에 몰입할 수 있게 함.
- ③ 관객 스스로가 '마을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자신이 처한 상황,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음.

■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파수꾼>은 1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차용하여 1970년대의 정치 상황을 풍자한 작품이다.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결국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고 만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의 억압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진실을 지키고 밝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화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우화적인 방법이 성공할 경우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든 들어맞는 것이다."라고 하며 2우화적 희곡의 강점을 말하기도 하였다.



❶ <파수꾼>(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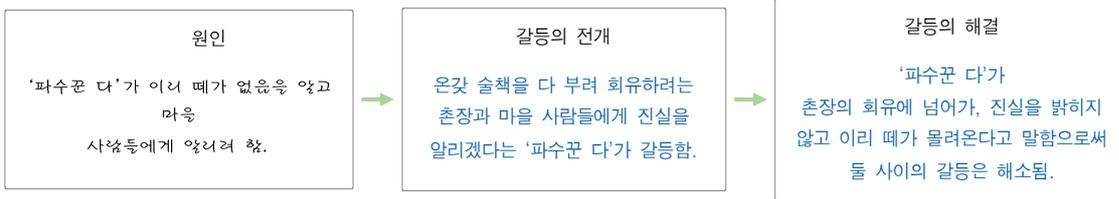
## “파수꾼” 막중 탐구 문제

1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등장인물의 특성과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겉으로 드러난 특성	성격
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역군</li> <li>· 정중할 태도</li> <li>· 낮고 부드러운 음성</li> <li>·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말투로 말을 함.</li> <li>· 거짓말과 진실 밝히기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안아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겉모습과 달리 거짓말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철저히 지배하고자 하는 위선적인 인물임.</li> <li>·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 교활함을 지님.</li> </ul>
파수꾼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의바른 태도</li> <li>· 나이 든 모습</li> <li>· 이리를 꼭 잡고 싶어 함.</li> <li>· '파수꾼 다'를 걱정하고 격려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진하여 이리의 존재를 믿음.</li> <li>· 촌장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있음.</li> <li>· 촌장에게 인정받고 싶어 함.</li> </ul>
파수꾼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가 어림.</li> <li>· 촌장의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함.</li> <li>·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신이 뚜렷하고 비판적임.</li> <li>· 권력자의 회유에 설득되는 나약함도 지님.</li> </ul>

**2 갈등 양상을 파악해 보자.**

**(1) ‘파수꾼 다’의 갈등 전개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2) ‘다’의 내적 갈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3 읍은 이 죄곡이 발표된 무렵의 시대 상황을 설명한 글이다. 이 글을 참고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파수꾼>은 1974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당시 권력자들은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앞세우며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논리를 악용하여,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켰고,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고자 하였던 많은 지식인이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1) 옛글을 참고하여 작품 속 인물들과 소재물의 상징적 의미나 역할에 관해 말해 보자.**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리 때: 체제와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들어 낸 가상의 적</li> <li>촌장: 거짓말을 만들어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는 권력자</li> <li>파수꾼: 권력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제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력 유지에 협력하는 존재</li> <li>딸기: '파수꾼 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회유의 수단, '파수꾼 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촌장의 젊은 날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매개체</li> <li>망루: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함.</li> </ul> |
|---|--|

**(2) 다음 ‘촌장’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말해 보자.**

“애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덧들을 보살피고 양철 복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하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북한군이 언제라도 철책을 넘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유포하여 국민들을 공포에 가들으로써 자신들의 독재 정치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 1970년대 독재 권력의 안보관

## “담수꾼” 읽기 용 문제

1. 이리 때'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파수꾼 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리 때'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게 된 데서 생기는 환희와 불안을 동시에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 사명감을 느꼈을 것이다.
2.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리가 무서워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다.
3. 촌장이 '다'를 설득하면서 다른 파수꾼들을 언급한 까닭은 무엇인가?  
 촌장의 거짓말에 속아 이 쓸쓸한 곳에서 평생을 보낸 다른 파수꾼들을 가엾게 여기는 '파수꾼 다'의 마음을 건드려, '파수꾼 다'로 하여금 '이리 때'가 사실은 '흰 구름'이라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4. 촌장이 '다'를 설득하고 있는 방식은 어떠한가?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맞아 죽을 것이라고 하여 동정심을 유발함으로써 '다'를 설득하고자 한다.
5. 이 연극에서 '마을 사람들'의 역할은 누가 하는가?  
 관객이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데, 이 작품의 실험극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6. 촌장이 운반인을 처벌하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여 촌장의 지배를 위협에 빠뜨린 식량 운반인을 처벌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더라도 이를 드러낼 생각을 갖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7. 촌장은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그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촌장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촌장은 그를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려고 한다. 촌장은 '파수꾼 다'에게 "마을엔 오지 말아라."라고 말한다.

## “담수꾼” 구맷 문제

### ㉠ , 촌장이 되어 등장.

'해설자'는 극이 시작할 때 관객들에게 극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 부분에서는 해설자 역의 배우가 '촌장'으로 역할을 바꾸어 등장하는데, 이 작품이 한 사람이 여러 역을 맡는 실험극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 이백십이 좋아 보이는 얼굴과 경종만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이 같은 외모, 태도, 목소리는 촌장을 긍정적인 인물이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작품 전체 내용과 관련지어 보면 이것은 촌장의 부정적인 측면을 은폐하는 꾸민 것으로, 그가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인물임을 드러낸다.

### ㉢ 어떤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시다.

편지는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보낸 것으로, 이리 때라고 알려진 것이 사실은 '흰 구름'임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촌장이 편지를 읽고 본인의 어린 날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 촌장 또한 어린 시절에는 이리 때의 존재를 믿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 ㉣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딸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촌장이 거짓말로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촌장이 '파수꾼 다'와 딸기를 따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라는 요구에 응한다면 그에 응당한 보상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촌장이 '딸기'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 난 알고 있지.

'이리'는 꾸며 낸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촌장이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 대응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는 것을 이 교활한 촌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솔직하게 인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㉞ 대체요, 촌장님! ...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이 꾸민 거짓말에 속아 파수꾼들과 마을 사람들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해 '파수꾼 다'가 이야기하고 있다.

**㉟ 어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촌장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 말이다. 촌장은 '안전', '단결', '질서'라는 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거짓말이 의미 있는 것임을 강변하고 있다. 없는 사실을 꾸며 내어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독재 권력의 유지에 필요한 '질서'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1970년대 독재 권력을 비판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들어 있다.

**㊱ 물론 저 총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파수꾼의 희생을 전체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 미화하여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촌장의 의도가 담겨 있다.

**㊲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른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촌장은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을 속인 것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한 교활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㊳ 그래, 살인이지. ...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촌장은 진실이 알려질 경우 생길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이는 '파수꾼 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그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㊴ 그럴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 정말 약속한다니까.**

촌장은 오늘날 양보하면 '파수꾼 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며 그를 달래고 있다.

**㊵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오죠? ...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면 어리분.**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군중이 모인 장면 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렵다. 이 작품에서는 망루로 몰려오는 마을 사람들을 무대 위로 등장시키지 않고, 관객의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하여 희곡의 등장인물 수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㊶ 교과서 217쪽 27행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걸어간다.**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촌장에게 설득당해 진실을 밝히는 일을 내일로 연기하였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은 이 때문에 그가 괴로워함을 드러낸다.

**㊷ 교과서 218쪽 8행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머뭇내 부르짖는다.**

'긴 침묵'은 '파수꾼 다'가 진실 밝히기와 그것의 유보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

**㊸ 난 저 사람들이 싫어. ...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촌장은 권력자에게 속아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 같은 어리석은 대중을 싫어하며, 진실은 밝혀 드러내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파수꾼 다'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권력자가 피지배자를 속이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촌장의 본심을 솔직하게 드러낸 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뒤의 것이라고 본다면 '넌 내 추억'이란 말은 촌장도 젊은 시절에는 '파수꾼 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순수한 청년이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㊹ 내가 지면쯤 바래다 드리지요. ... 양철 북을 치면 내 모습이 멎었지 않던가요?**

촌장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그것을 진실로 믿고 살아 온, 그리고 권력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파수꾼 나'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㊺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촌장의 승리로 귀결됨으로써 진실이 덮이고만 부정적인 현실과 진실 드러내기에 실패한 '파수꾼 다'의 우울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음향이다.

**㊻ 파수꾼 다는 양철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진실 드러내기에 실패한 '파수꾼 다'의 복잡한 심리를 잘 보여 주는 부분이다. '파수꾼 다'의 양철 북 두드리기는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있는 '파수꾼 나'의 양철 북 두드리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파수꾼들은 마을 밖 황야에 세워진 망루에서 이리 떼가 나타나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이 이리 떼가 나타났다고 양철 북을 두드리면 언제라도 대피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로 파견된 파수꾼 '다'는 망루 아래서 이리 떼의 습격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데,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선임 파수꾼 '가'의 외침과 북 소리에 항상 겁먹고 긴장한다. 마을에서는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한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일도 일어난다. 어느 날 저녁, 파수꾼 '다'는 다른 파수꾼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망에 올라갔다가 파수꾼 '가'가 외치는 이리 떼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충격에 빠진다.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편지를 써 이리 떼의 정체가 거짓임을 알린다.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열골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중략>

촌장 : 오다 보니까 저쪽 댁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나 :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 저쪽요, 저쪽. 짚레 덩굴 밑이던가요…….  
 나 : 드디어 붙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 네, 촌장님.  
 촌장 :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다 :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촌장 :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오래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나?  
 다 :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 난 알고 있지.  
 다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댁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 : 얘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댁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 뭐라구?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 사실 우울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고, 마을엔 가서 울타리를 돌렸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 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 그래, 외치마.

다 : 아, 이젠 됐어요!

촌장 : (혼잣말처럼) ……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으로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 뭘 망설이시죠?  
 촌장 :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은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 살인이라고요?  
 촌장 :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히고 망치로 얻어맞는 내 모습을. 살은 찢기고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 아니예요, 그건!

촌장 : 아니라구?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할 거야.

다 :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 허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내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 그것 봐. 난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  
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  
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 물론 약속하지.

다 : 정말이죠. 정말?

촌장 :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중략>

나 : (촌장에게 안겨 있는 '다'를 가리키며) 그 앤 지금 몸  
시 아픕니다.

촌장 :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다 :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촌장 :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나 :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애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 주렴.

다 : 고마워요…….

나 :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요?

촌장 :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 마을 사람들요?

촌장 :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리 때문이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  
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중략>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  
짖는다.

다 :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리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  
다.

가 :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촌장 :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  
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  
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리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  
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중략>

촌장 : 애,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  
테는 안됐지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다 : ……네?

촌장 : 마을엔 오지 마라.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중략>

촌장 : 그럼, 잘 있거라.

나 : 가시려고요, 촌장님?

촌장 :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나 :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덧도 좀 살펴 볼 겸 해  
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 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  
진다. 잠시 후, 망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 떼다!' 외친다. 파  
수꾼 '다'는 양철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 이강백, 「파수꾼」

**대륜고등학교 (대구)**

1.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의 존재를 믿으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 ㉡ 파수꾼 '가'는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인물이다.
- ㉢ 파수꾼 '나'는 촌장에 대해 반감을 가지면서도 파수꾼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인물이다.
- ㉣ 파수꾼 '다'는 '이리 떼'의 정체를 끝내 깨닫지 못함으로써 진실을 드러내는 데 실패하는 인물이다.
- ㉤ '촌장'은 마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는 인물이다.

**대륜고등학교 (대구)**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강백은 1970년대의 억압적인 정치·사회 상황 속에서 제도적인 폭압 체계를 상징적으로 풀어내는 데에 성공한 작가로 평가된다. 특히 제도적인 폭압 하에서 신음하는 개개인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러한 현실이 이면에서 횡행하고 있는 권력의 위선을 폭로하는 데에 더욱 주안점을 두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파수꾼」은 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포티프로 하여 1970년대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해 동원된 안보 논리를 우화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 ㉠ '도끼'와 '망치'는 당시 사회를 억압하던 권력의 폭력성을 의미한다.
- ㉡ '편지'와 '양철 북'은 권력의 위선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뜻한다.
- ㉢ '이리 떼'와 '망루'는 당시 체제 유지를 위해 이용되던 안보 논리를 가리킨다.
- ㉣ '병'과 '살인'은 당시 제도적인 폭력에 의해 희생된 개인의 비극적인 삶을 상징한다.
- ㉤ '흰 구름'과 '딸기'는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폭압적인 권력에의 저항을 나타낸다.

**대륜고등학교 (대구)**

3. ㉠~㉤에 담긴 **작가의 창작 의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인물의 위선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한 설정이다.
- ㉡ ㉡ : 인물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보이는 가식적인 행동이다.
- ㉢ ㉢ : 관객을 극중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 ㉣ : 인물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장면이다.
- ㉤ ㉤ :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극적 반전을 음향 효과를 통해 암시하고 있다.

**대륜고등학교 (대구)**

4. <보기>의 ㉠과 ㉡를 고려하여 [A]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완성된 문장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보기>

선생님 : '파수꾼'은 어떤 작품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을까요?  
 학생 : '양치기 소년과 늑대'요  
 선생님 : 맞아요.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에요. 혹시 우화의 내용을 알고 있나요?  
 학생 :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놀리다가,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아 양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 잘 알고 있네요. '파수꾼'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감시하고 제한하던 1970년대 정치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을 창작했어요.  
 학생 : 그렇군요.  
 선생님 : 그렇다면 이렇게 우화를 원작으로 새롭게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를 ㉠과 ㉡를 고려해서 말해볼까요?  
 학생 : [A] 첫째, ㉠을 고려할 때 ( ) 할 수 있는 효과 ( )가 있다. 둘째, ㉡를 고려할 때 ( ) 할 수 있는 효과 ( )가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촌장 :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나 : 아, 촌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촌장 :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때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 곳엘 찾아온 거예요.

나 :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 : 오래 뵈지 못했더니 그 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나 :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 :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어 있었습니다.

나 :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 저쪽요, 저쪽. 짙레 녀굴 밑이던가요…….

나 : 드디어 붙잡는군요!

(나)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 네, 촌장님.

촌장 :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잃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다 :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촌장 :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다 :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다 :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 난 알고 있지.

다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 이강백, '파수꾼'

**인향고등학교 (인천)**

**5.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무대 위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하여 쓴 글이다.
- ㉡ 등장인물의 수가 제한되고 인물의 성격적 대립이 뚜렷하다.
- ㉢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사건이 전개된다.
- ㉣ 소설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 ㉤ 배우, 무대, 관객과 함께 연극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향고등학교 (인천)**

**6. ㉠ ~ ㉤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촌장'의 위선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친절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인물을 설정하고 있군.
- ㉡ ㉡ : '나'를 내보내고 '다'와 은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군.
- ㉢ ㉢ :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상기시켜 준 '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방어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 ㉣ : '촌장'은 진실을 말하는 자를 수다쟁이로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군.
- ㉤ ㉤ : '촌장'은 자신이 '이리 떼'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군.

**인향고등학교 (인천)**

**7. 윗글에 나타난 ㉠, ㉡의 의미를 서술하십시오.**

<조건>

- 1. 반드시 문장으로 쓸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촌장 :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치어 있었습니다.

나 :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 저쪽요, 저쪽. 짚레 덩굴 밀이던가요…….

나 : 드디어 붙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 네, 촌장님.

촌장 :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떼는 없고, 흰 구름 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닢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다 :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촌장 :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오래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 난 알고 있지.

다 :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닢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 : 았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닢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 뭐라구?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고, 마을엔 가서 울타리를 돌렸다. 망루두 세웠구, 양철 북도 두들기구,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 그래, 외치마.

다 : 아, 이젠 됐어요! 뭘 망설이시죠?

촌장 :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돼서 그래. 사람들은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 살인이라고요?

촌장 :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찌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 내릴 거다. 끔찍해. 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 아니에요, 그건!

촌장 : 아니라구?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지?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할 거야.

다 :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 허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았,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 ㉦그것 봐.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구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 물론 약속하지.

다 : 정말이죠. 정말?

촌장 :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중략>

나 :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 마을 사람들요?

촌장 :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 애야, 괜찮겠니?

다 : …… 네.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가 :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몰려갔다!

촌장 :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 하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지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나 :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촌장 : 고맙다. 정말 잘해 주었다.

- 이강백, '파수꾼'

유성여자고등학교 (경북)

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파수꾼 '다'는 촌장이 진실을 알면서도 감추어 왔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 ㉡ 파수꾼 '다'는 '촌장'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였다.
- ㉢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안 순간 체제의 유지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다시 속이는데 성공하였다.
- ㉤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가공의 존재로 이리 떼가 제시되고 있다.

유성여자고등학교 (경북)

9.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촌장이 파수꾼 '다'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파수꾼 '나'를 내보려고 한 거짓말이다.
- ㉡ ㉡ : 촌장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 ㉢ ㉢ : 촌장은 안전을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소망을 위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
- ㉣ ㉣ : 파수꾼 '다'가 거짓말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 ㉤ : 다시는 진실을 말하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처벌하려는 것이다.

유성여자고등학교 (경북)

10. ㉠ ~ ㉤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
- ㉡ ㉡ : 부정한 대가를 제시하며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 ㉢ ㉢ : 상대방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여 떠넘기고 있다.
- ㉣ ㉣ : 논리적 논법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 ㉤ ㉤ :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 3-(1) 모닥불

1.④ 2.④ 3.① 4.'비', '폭설', '담'이 유사한 시적 의미를 지닌다. 5.1, 2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주된 표현 방식은 열거법으로 조사 '도'를 사용하여 같은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6.④ 7.④ 8.③ 9. (가)는 평등과 어울림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드러낸다.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고, 소재를 열거하며, 조사 '도'의 반복으로 운율과 의미를 더한다. 또한 과거 회상과 현재 상황 묘사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고단한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모닥불은 피어오른다'는 시구를 반복하고, 특정 조사 '에서', '에'를 반복하며, 비유법을 사용하여 '모닥불'을 '한 그루 향나무'에 빗대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모닥불을 피어오르는 장소와 시간을 열거하고 있다 10.④ 11.③ 12.⑤ 13.② 14.⑤ 15.③ 16.② 17.④ 18.① 19.⑤ 20.④ 21. '제비'는 관리들의 수탈로 살 곳을 잃은 힘없는 백성이고, '느릅나무 왜나무의 구멍'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 또한 '황새'와 '뱀'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배층을 뜻한다. 따라서 백성을 수탈하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우화적으로 드러낸다. 22.⑤ 23.② 24. (A) 할아버지의 불행한 과거 (B)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25.② 26.②⑤ 27.(2), 사람과 동물 모두가 함께 어울려 모닥불을 쬐는 모습을 드러내 평등과 화합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28.④ 29.③ 30.⑤ 31.③ 32.④ 33.① 34.④ 35.①

### 3-(1) 농무

1.① 2.④ 3.③ 4.㉠ 달 ㉡ 어두운 곳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된다. 5.㉢ 운동장 ㉣ 소줏집 ㉤ 도수장 앞 6.④ 7.② 8.도수장 9.⑤ 10.⑤ 11.⑤ 12.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농민'이나, '도시노동자'들은 소외된 사람들로, 이들이 겪는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적 문제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13.① 14.② 15.③ 16.⑤ 17.① 18.⑤ 19.② 20.(가)의 '나'는 농민 개인이고, '우리'는 농민들이고, (나)의 '나'는 도시노동자 개인이고, '우리'는 도시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당시의 시적 상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 사회 전체 또는 도시 노동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1.④ 22.③ 23.② 24.④ 25.① 26.② 27.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산업화에 소외된 자들의 슬픔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는 농촌 노동자로 자신의 울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나)는 도시노동자로 체념적 모습을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28.④ 29.② 30.④ 31.① 32.③ 33.① 34.④ 35.⑤ 36.⑤ 37.③ 38.④

### 3-(2) 구운몽

1.㉠ 꿈 ㉡ 깨달음을 얻기 전 <구운몽>의 성진은 부귀공명과 입신양명을 추구하지만, <조건1>의 '조산'은 사랑의 성취를 바란다. 2.⑤ 3.⑤ 4.④ 5.② 6.① 7.⑤ 8.② 9.④ 10.㉢ 성진과 팔선녀(아홉 명의 인물) ㉣ 삶이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덧없음(인생무상) 11.㉦ 신라, 낙산사 ㉧ 정토사 12.⑤ 13.② 14.③ 15.몸: 용궁에 가서 술에 취했다. 말씀: 석교에서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수작했다. 뜻: 세상의 부귀영화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여 한탄했다. 16.① 17.④ 18.② 19.(가)는 '정토사'라는 구체적 증거물이 존재하므로 '전설'이다. 20.② 21.④ 22.⑤ 23.③ 24.⑤ 25.⑤ 26.③ 27.② 28.④ 29.④ 30.③ 31.④ 32.⑤ 33.(1)인생무상, 한단지몽, 일장춘몽, (2)세속적 욕망을 실현한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다. 34.① 35.⑤ 36. <보기>의 주제는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생무상'이며, '꿈'은 인생이 한순간 꿈과 같이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37.③ 38.④ 39.④ 40.①

### 3-(2) 만세전

1.⑤ 2.② 3.③ 4.② 5.④ 6.⑤ 7.⑤ 8.⑤ 9.② 10.③ 11.① 12.② 13.③ 14.② 15.① 16.① 17.⑤ 18.④ 19.② 20.⑤ 21.일제가 감추고 싶은 식민 통치의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22.① 23.① 24.④ 25.⑤ 26.⑤ 27.④ 28.② 29.⑤ 30.①② 31.② 32.⑤ 33.③ 34.'민족적 활로'는 국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고 독립을 도모하는 길을 의미하고, '몽유병'은 식민지 상황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조선인의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 35.④ 36. 두 작품은 여로형 구조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뒷글에서의 판단 근거는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나'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올라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후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기>에서의 판단 근거는 '구보 씨'가 정오에 집을 나와 배회하다가 전차를 타고, 경성역을 찾아가고, 다방에서 친구를 만난 후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동안 이동한 공간에 따라 이

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37.③ 38.⑤ 39.③ 40.⑤ 41.② 42.② 43.③

### 3-(2) 겨울 나들이

1.④ 2.④ 3.㉞는 노파가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고 도리질을 하는 것 ⑥는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 4.⑤ 5.④ 6.㉟은 아들을 지키겠다는 할머니의 의지이다. ㉠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겠다는 의미이다. 7.감나무 잎사귀에 윤기가 흐른다. 8.② 9.④ 10.가족과 더불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11.② 12.②④ 13.① 14.④ 15.③ 16.⑤ 17.② 18.①⑤ 19.⑤ 20.① 21.⑤ 22.④ 23.(1) 도리질을 멈추지 않는 일을 의미한다. (2) 시어머니의 상처 입은 마음을 깊이 연민하면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 일을 의미한다. (3) 남편의 상처를 감싸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24.④ 25.③

### 3-(3) 봉산 탈춤

1.② 2.③ 3.⑤ 4.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할 수 있었다. 5.⑤ 6.③ 7.① 8.⑤ 9.② 10.⑤ 11.재담과 재담을 구분한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다. 12.⑤ 13.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14.(나):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풍자한다. (다): 양반들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풍자한다. 15.② 16.③⑤ 17.② 18.③ 19.③ 20.⑤ 21.④ 22.③ 23.④ 24.④ 25.④ 26.③ 27.② 28.① 29.③ 30.⑤ 31.② 32.부패와 황금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33.⑤ 34.① 35.④ 36.(1)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2)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37.③ 38.④ 39.② 40.⑤ 41.(1) 말뚝이의 변명, 말뚝이의 조롱, 재담의 시작 (2) (다)와 (라)는 모두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지만, (다)는 양반층이 주로 향유하던 시조이고, (라)는 평민층이 주로 향유하던 민요이다. 42.③ 43.②

### 3-(3) 파수꾼

1.① 2.③ 3.⑤ 4.첫째, ㉞를 고려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⑥를 고려할 때 민감한 내용을 상징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독재 권력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④ 6.③ 7.㉞는 독재 권력이 누

리는 부당한 이익을 상징한다. ㉞는 공포를 조성하여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가공의 존재이다. 8.② 9.③ 10.④ 11.③ 12.④ 13.(1)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 명분으로 촌장 혼자서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수단이다. (2) 극갈래는 무대상연을 전제로 하여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관객을 등장인물로 끌어들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려 한다. 14.④ 15.③ 16.⑤ 17.② 18.① 19.② 20.파수꾼 '가'는 진실에 무관심하고 권력에 순종한다,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촌장의 회유에 굴복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 21.③ 22.① 23.⑤ 24.② 25.(1) 진실을 숨기고 있다. 2) 촌장은 거짓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귀도는 어린 아들이 고통스럽고 현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26.④ 27.②③ ⑤ 28.진실 29.① 30.③ 31.① 32.이 글의 촌장은 이리 때가 나타난다는 거짓말을 통해, <보기>의 엄석대는 담임선생님의 인정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35.④ 36.(1) 흰 구름뿐이지만 이리 때가 있다고 한다. (2) 망루와 양철 북 37.⑤ 38.② 39.⑤ 40.①

### 3-(4) 일야구도하기

1.② 2.① 3.③ 4.② 5.③ 6.⑤ 7.⑤ 8.사물의 본질을 깨닫고 외부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진다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9.① 10.④ 11.③⑤ 12.⑤ 13.④ 14.② 15.② 16.① 17.③ 18.③ 19.② 20.① 21.① 22.③

### 4-(1) 용소와 며느리바위

1.③ 2.① 3.① 4.③ 5.당신, 된다. 6.(1)(가)와 (나)는 구비문학으로 분류된다. ㉞, ㉠에는 과장적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전승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 구비문학적 특징이다. (2)(가)는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하는 바위'와 '그 장재 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沼)'라는 구체적 증거물이 있으므로 전설로 분류한다. (나)의 ㉠에는 가난한 흥보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잘 돌보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서도 비속어의 사용과 장면을 과장하는 표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성이 드러난다. 7.⑤ 8.④ 9.② 10.① 11.② 12.⑤ 13.장재 첨지는 인색하고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며 소는 논에 물을 공급하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위한 이타적인 공간이므로 그의 집터가 소가 된 것은 민중들이 부의 공평한 분배를 소망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1) 축규회

1.① 2.② 3.한국문학은 내용적으로는 한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담고 있어야 하고, 한국어로 표현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다)~(마)를 한국문학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다)는 한문으로 기록되었지만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창작된 것이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우리 민족의 정서를 표현했으므로 한국문학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비록 한국인 작가가 '제주 4.3'사건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현실을 소재로 해서 글을 썼지만, '일본어'로 기록된 문학이므로, 조건에 맞지 않아 한국문학이라 할 수 없다. (마)는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구어로 전하여 옹기 문학이므로 한국문학의 범위에 포함된다. 4.③ 5.④ 6.③ 7.작가가 당나라 유학중에 창작했다면, 당나라의 벼슬아치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알아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작가가 신라에 귀국 후 창작했다면, 신라의 귀족들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8.④ 9.③ 10.① 11.④ 12.① 13.⑤ 14.(다)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3.4조, 4.4조의 4음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장 첫 구는 3음절로 고정되는 형식적 특징이 드러난다. (라)는 각 행의 글자수가 모두 다섯 글자이고, 네 행으로 짜여 있어 기승전결의 짜임을 갖추고 있으며 승구와 결구의 마지막 글자가 운자인 특징이 있다. 두 작품 모두 내용면에서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15.③ 16.④ 17.③ 18.(나)는 3장 6구 45자 내외, 3.4조 4.4조의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으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다)는 한시 중 오언절구로 5글자씩 4행으로 이루어지며 승구, 결구에 각운을 이룬다. (나)는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 (다)는 '기, 승, 전, 결'의 4단 구성으로 시상이 전개된다는 차이가 있다. 19.② 20.③ 21.(가)의 '탐스러운 꽃송이'는 '화자의 높은 학문적 경지'를 비유한 사물이고, <보기>의 '가을바람', '비'는 '화자의 쓸쓸하고 괴로운 정서'를 부각시키는 사물이다. 22.② 23.③ 24.④ 25.② 26.③ 27.③ 28.이유에 해당하는 시구는 '천한 땅에 태어난 것'이고 그 의미는 신라의 골품제라는 신분제 속에서 6두품이라는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고, 당나라에서는 변방의 외국인이었다는 의미이다.

### 4-(1) 평상이 있는 국숫집

1.② 2.③ 3.⑤ 4.④ 5. '국수가 찬물에 헝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에서 알 수 있듯 국수를 찬물에 행구는 소리를 흉내낸 것이다. 또는 '세상에 이런 짧은 말',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을 통해 상태의 서러운 이야기를 공감하며 혀를 차는 소리로도 해석할 수 있다. 6.(나)에는 첫째,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라는 구절에서 자연과 인간을 대조적으로 인식하는 한국문학의 특징이 드러난다. 둘째,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라는 구절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덕목을 자연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드러난다. 7.한국문학은 우리 말과 글로 전해지는 것으로 말로 전해지는 구비문학과 글로 기록되는 국문문학과 한문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다)는 한국인 작가가 쓴 한시로 한문문학에 해당하므로 한국문학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고려 중엽 이후 발생하여 노래로 향유되던 시조를 국문으로 기록하면서 전승된 구비문학으로, 한국문학이다. (마)는 한자로 기록되었지만, 그 작가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문학이 아니다. 8. (A) 심장흥진 (B)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9.③ 10.④ 11.① 12.④ 13.② 14.③ 15.③ 16.식풍, 지난겨울 17.② 18.⑤ 19.(1) 국수가 찬물에 헝귀질 때 나는 소리를 의미한다. (2) 상대방의 처지가 안타까워 가볍게 혀를 차는 소리를 의미한다.

### 4-(2) 흥보기

1.④ 2.㉔는 흥보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음식타령, 장가 타령을 하는 인물 간의 대화 장면이므로 '아니리'이다. ㉕는 자식들의 철없는 타령을 듣고 흥보아내가 신세 한탄을 하는 것으로 가장 느린 장단으로 애절하게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므로 '진양조'이다. ㉖의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점입가경'이다. 여러 아들이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상황에 '장가'까지 보내달라며 무리한 요구 사항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3.㉗에는 몰락한 양반이지만 양반의 체통을 지키려 남루한 의관일망정 갖춰 입은 것에서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에 집착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㉘에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아전에게 말을 높이지 못해 애매하게 하다가 매품팔이를 제안받자 단번에 말을 높이는 것으로 신분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㉗, ㉘는 흥보의 허위의식이 드러나므로 '풍자'가 드러난다. ㉙흥보의 아내는

'돈'보다도 남편의 건강과 안위를 더 걱정하는 인간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흥부부부상'에서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흥부부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③ 5.⑤ 6.⑤ 7.'생살지권을 가진 돈'이라는 표현에서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모습이 드러난다. 8.② 9.④ 10.③ 11.② 12.③ 13.⑤ 14.① 15.첫째, 박을 타는 장면은 아니리로 각색한다. 둘째, 놀부가 하는 말은 창으로 각색한다. 16.② 17.① 18. (1)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팔 자 걸음으로 여식비식 내려간다. (2) 생살지권을 가진 돈. 19.② 20.③ 21.④ 22.④ 23.수많은 자식들에게 옷을 해 입힐 수 없어 멍석에 구멍을 내어 씌우는 모습을 통해 흥보의 비극적 상황으로 인한 독자의 심리적 긴장을 이완시킨다 24.[A]에서는 흥보가 자신이 좋은 가문의 양반이므로 중인 계층인 아전에게 높임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양반의 체면과 자존심에 집착하는 허위의식을 풍자한다. [B]에서는 흥보가 돈을 받고 대신 매를 맞는 매품팔이의 내용을 통해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당시 사회를 풍자한다. 25.② 26.③ 27.⑤ 28.① 29.⑤ 30.④ 31.①

**4-(2) 뭇버들 같이 것거 / 춘망사**

1.③ 2.③ 3.④ 4.(다)-오연절구, 한 줄에 다섯 글자씩, 4줄로 써야 한다. (라)-철연절구, 한줄에 일곱 글자씩 4줄로 써야 한다. 5.③ 6.② 7. (가)에서 '뭇버들'과 '새납'은 화자의 분신에 해당한다. 임도 화자를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도치법, 상징적 소재의 활용, 말을 거는 듯한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가)는 평시조로 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의 정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종장의 첫음보는 3글자로 고정한다는 형식적 제약도 있다. 8.⑤ 9.① 10.② 11.④ 12.③ 13.④ 14.③ 15.③ 16.④ 17.④

**4-(2) 거산호 Ⅱ, 이니스프리 호수 섬**

1.①③ 2.④ 3.⑤ 4.③ 5.(가)와 (나)는 '산'을 중심 소재로 하여, 속세의 삶과 대조하여 '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가)는 산에서 욕심없이 소박하게 사는 삶을 꿈꾸지만, (나)는 산의 품성을 닮으며 살기를 원한다. 6.현재 화자는 '회색'의 공간에서 삭막하고 답답함을 느낀다. 화자는 '보랏빛'의 이니스프리를 지향하며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한적하고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꿈꾼

다. 7.③ 8.③ 9.① 10. ④와 ⑥는 대조적 관계이다. ④는 '변해쌓지만'의 구절에서 가변성의 특징이 드러나고, ⑥는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에서 영원성의 특징이 드러난다. 화자는 산에 기거하며 산을 닮고 싶다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인다. 11.① 12.㉠과 <보기1>의 '물'은 불변성을 지닌 자연이라는 공통된 특성이 있으며, ㉠은 (가)의 '장거리', '사람'과의 대조를 통해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13.④ 14.③ 15.① 16.④

**4-(3) 정선 아리랑**

1.④ 2.구름'은 왕조의 위기를 뜻한다. 조선 개국 시기에 고려 선비들이 정선에 머물며 망국의 한을 달랜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 3.⑤ 4.③ 5.⑤ 6.③ 7.② 8.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에서 자연물은 같이 붙어 있지만 화자는 임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대조적 상황을 강조하고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한다.

**4-(3) 황진이**

1.④ 2.③ 3.남북이 공동의 기억을 환기하고 공유하여 서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4.③ 5.② 6.① 7.③ 8.⑤ 9.⑤ 10.③ 11.⑤ 12.⑤ 13.③ 14.⑤ 15.㉠ 만장 ㉡ 상문살 16.② 17.③ 18.④ 19.④ 20.④ 21.② 22.④ 23.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문학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확인할 수 있다 24.① 25.④ 26.⑤ 27.④ 28.③ 29.황진이는 자신을 연모하다 죽은 총각의 혼을 진심으로 위로하므로, 따뜻한 심성을 가진 인물이다. 황진이는 사람들의 편견과 호기심 어린 시선에 맞서 당당하게 골목으로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당찬 인물이다.

- 끝 -

### 3-(1) 모답불

2.④

▶㉠은 병자호란의 패배를 바탕으로 했기에 ㉡과 관련됨.

**◆주제 저장소◆**

① <내 마음 버혀 내여>: 연군의 정  
 ② <강호에 겨울이 드니>: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③ <초암(草庵)이 적료(寂寥)하니>: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기는 그윽한 경지  
 ④ <풍설 석거친 날에>: 나라의 치욕을 보고도 죽지 못하는 신하의 처지 한탄함  
 ⑤ <강산(江山) 초흔 경(景)을>: 자연을 즐기는 삶

6.④

▶(나)의 모답불은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진보적 의지를 뜻함.

8.③

▶시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곳은 '슬픈 력사'임.

**▶넣어둬, 패턴 공략◀**

문학에서 '사실적', '구체적', '묘사', '대화', '행동', '일상'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며 문제의 정오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10.④

▶사건의 교차는 없음.

11.③

▶닭과 개가 아니라 닭의 짹개 개터럭임.

12.⑤

▶어려운 농촌 사정을 고려할 때 서정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13.②

▶같은 조사(도, 에서 등)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리듬을 살리고 있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상승 이미지 vs 하강 이미지 (★)**  
 \*상승 이미지: 피어나는 꽃, 떠오르는 태양 등  
 (열정, 희망, 활발 등 주로 긍정적)  
 \*하강 이미지: 내리는 비 혹은 눈, 떨어지는 낙엽 등  
 (이별, 슬픔 등 주로 부정적)

**2.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14.⑤

▶'서러운 아이'로 '몽둥발이가 된' 과거 사연을 소개한 것을 통해 민족 화합을 이끌어 낼 순 있으나 이것이 개인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 아님.

15.③

▶㉠은 부정적 존재로 시적 화자가 연민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대상이 아님.

**▶응, 헛갈리지 마!◀**

**연민 vs 미안함 (★)**  
 \*연민: 불쌍하고 가련히 여김  
 \*미안함: 남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움  
 (보통 후회나 반성을 동반)  
 대상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것과 '미안함'을 느끼는 것을 비슷하게 여기는 수험생이 많은데 둘은 전혀 상관이 없고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의인법 vs 활유법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16.②

▶(나)에서 모답불을 찌는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답불을 찌는 것임을 알 수는 있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빈출 비유법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줄줄줄)